24시간 끊김없는 크리스천 인터넷 음악방송
CCM CCAST

기독일보

VISION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3012호

2026 의정부빌리그래함전도대회 "역방향 선교 출발점 될 것"

5월 17일 개최… 경기북부 5천 교회 연합, 3~5만 명 초청 복음 확산



2026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2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대회장 이정재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오는 5월 17일 경기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6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를 앞두고 준비위원회가 20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밝혔다. 이번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는 성도와 시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약 3만에서 5만 명 규모를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준비위원회와 빌리그래함전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준비하는 초교파적 복음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 교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북부 교회 연합으로 준비된 초교파 복음운동

대회장 이정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도대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약 5천 교회가 연합해 준비하는 초교파적 복음 운동"이라며 "특히 경기북부의 거점도시 의정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목사는 "이번 전도대회는 하나의 집회가 아니라 영적 흐름을 만드는 사건"이라며 "지난 1년여 동안 100만 시간 기도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해 영적 기반을 준비해 왔고, 이번 대회는 그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0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명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회가 국내 중심을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각 나라로 돌아가는 '역방향 선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가 선교적 확장성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 출발점 될 것"

이정재 목사는 대회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전도대회는 빌리그래함전도협회의 역사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가 결합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정부는 복음의 모델 도시가 되고, 경기북부는 연합의 플랫폼이 되며, 대한민국은 다시 복음으로 깨어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7번의 전도대회를 이어가는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부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한국교회총연합 김철훈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복음과 전도, 열정을 가지고 시작되는 이번 전도대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땅들이 회복되는 귀중한 사역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열정의 시작을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가 맡은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윌 그래함 목사 주강사… 다양한 세대 참여 프로그램 마련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주강사로는 고 빌리 그래함 목사의 손자인 윌 그래함 목사가 나선다. 여기에 지역 목회자들이 기도 순서를 맡고, 찬양팀 아이자야 61와 타야, 해리티지 에스콰이어,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는 1950년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가 설립한 기독교 선교 단체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의정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도 사역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

◈다음세대와 이주민 참여 확대… 전도 이후 정착까지 준비

부대회장 강권식 목사는 다음세대 참여와 후속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 다음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인터파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1차와 2차 예약이 매진됐고, 현재 3차 예약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 지역 교회들이 다음세대와 함께 참여해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청년과 다음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회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강 목사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 약 천 명의 복음상담사를 양육하고 있다"며 "후속조치 분과를 통해 지교회와 연결하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카이캄 제53회 목사안수식 개최… 145명 목사의 길로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복음과 부르심 붙들길"


카이캄 제53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자 서약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카이캄 제53회 목사안수식 안수례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가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에서 제53회 목사안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145명이 안수를 받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

카이캄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마 20:28)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평생 본을 보이셨다"며 "그 모습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한 목사들은, 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송 목사는 섬김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섬길 수 있으며, 섬기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섬기는 목사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기철 목사가 사회를 본 예배에선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전옥표 목사(충만한교회 담임)의 성경봉독과 정혜욱 소프라노(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의 축가 후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왜 날 사랑하시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분의 자녀들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목사가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브라이언 박 목사(저스트 지저스 대표)가 한국교회와 카이캄, 그리고 안수자들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분만을 증거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송용필 목사가 마평택 목사(새순교회), 김윤희 목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정흥열 목사(아신대 총장), 박성민 목사(CCC 대표), 브라이언 박 목사(저스트 지저스 대표), 신성욱 교수(아신대) 등 안수위원들을 소개했다.

이날 안수를 받는 이들이 서약한 뒤 11개 조로 나뉘어 본격 안수례가 진행됐다. 이후 송용필 목사가 이들이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고, 축가와 권면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박성민 목사(CCC 대표)는 권면사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고,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시대와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홍열 목사(아신대 총장)는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분은 AI 시대에 목회하게 될 텐데 AI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목회에 있다"며 "바로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이다. 감정이 없는 AI와 같은 목회가 아니라 주님처럼 공감하는 목회를 하길 바란다. 목회는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안수받은 자들을 대표해 김건우·김주영 목사가 인사했다. 먼저 김건우 목사는 "'목사도 결국 평생 자기 한 사람을 만들다가 가는 것'이라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목사의 직분은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거듭난 영을 성장시키는 데 게으르지 않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훗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목사는 "한 명의 목회자가 서기 위해 많은 분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었다. 그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겠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고 했다.

이날 예배와 안수식은 이재구 목사(제53회 대표)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김진영 기자

가수이자 의사… 이진영 피어봄의원 청담점 원장 》 7면

발달장애인들의 무대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AI, 도구 넘어 선교 구조 변화 이끈다”

한국선교신학회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 시대 선교 패러다임 전환 논의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선교신학회


(왼쪽부터) 최동규 교수, 송용섭 교수, 정용구 선교사, 김은하 교수, 박한나 교수. ©한국선교신학회

한국선교신학회(회장 허준)가 최근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AI와 선교’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안대학원대학교와 세뛰세 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선교의 접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근재 총장(주안대)과 최동규 교수(서울신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선교와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선교상담, 생성형 AI의 목회 적용, 디지털 선교 전략, 그리고 가상세계 속 선교 가능성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AI 기반 선교상담과 인간 내면 회복의 신학적 접근

박한나 교수(주안대)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정구조상담(ESCT)의 선교상담학적 적용 연구’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감정 구조와 신앙 회복 과정을 조명했다. 그는 “인간의 타락을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닌 존재 인식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경 속 하나님의 질문이 인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특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향한 영적 부르심”이라며 “이 질문을 통해 인간은 자기 은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술이 선교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AI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아니지만, 선교사가 자신의 감정 구조와 방어 기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I 기반 선교상담은 성령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전이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기술은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와 목회 효율성…“행정 부담 줄이고 사역 집중 높인다”

김은하 교수(서일대)는 생성형 AI가 여성 목회자의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AI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는 행정 효율성과 사역 집중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효율성이 사역 집중도 향상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AI의 핵심 가치가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보여줬다.

김 교수는 “생성형 AI가 여성 목회자에게 ‘디지털 사역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며 “다만 기술 도입은 신학적 성찰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술은 목회의 인간적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선교 패러다임 전환…“도입이 아닌 구조 재설계 필요”

정용구 선교사(KWMA AI, 디지털선교실행위원회 부위원장)는 AI 시대를 맞은 교회와 선교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선교 현장이 기술 확산이 정체되는 ‘AI 케즘’ 구간에 진입했다”며 “일부만 활용하는 구조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선교사는 “앞으로 AI가 단순한 콘텐츠 생성 도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피지컬 AI’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교 방식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교회와 선교계가 기술 도입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실제 적용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 “AI를 특정 전문가의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평신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기존 사역 구조에 기술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선교사는 데이터 기반 사역, 플랫폼 중심 연결, 신학적 윤리 정립, 단계적 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향후 5년이 교회와 선교 현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세계와 AI NPC… 새로운 선교지 가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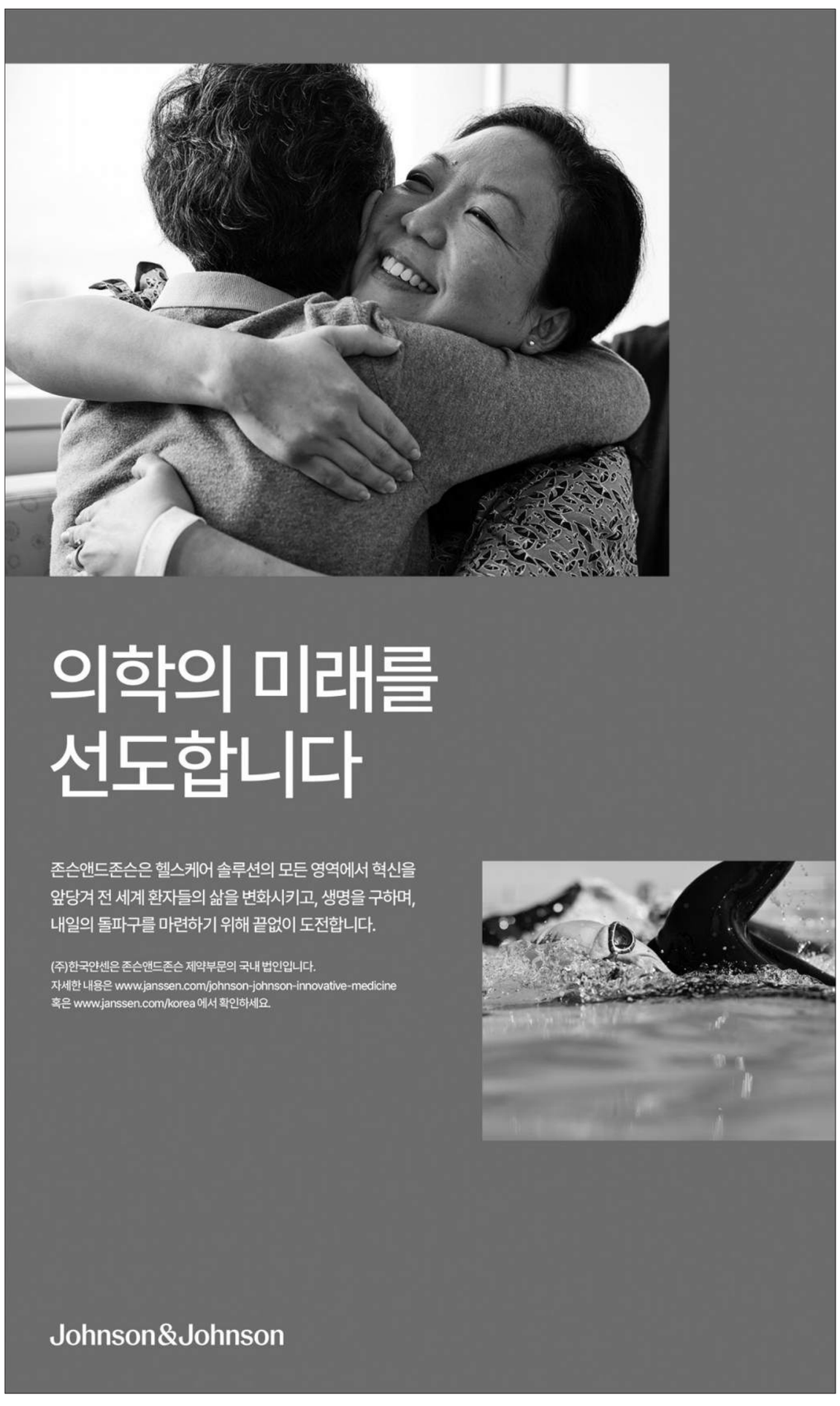
송용섭 교수(서울기독대)는 시뮬레이션 게임 속 AI NPC를 선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가상세계의 선교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과 AI NPC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상세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인간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AI NPC를 선교의 도구이자 동역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인간 고유성 왜곡이나 현실과 가상의 혼동이라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AI NPC를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비인간 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세계 활용에 따른 위험성은 교회의 신학적 분별과 책임 있는 관리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사회와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교회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심화하고 선교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AI는 도구, 영적 분별은 설교자의 몫”

AI혁신목회연구소,
제3차 세미나 개최


세미나 강사진. (왼쪽부터) 권호 교수, 김에스라 대표, 김진하 교수 ©AI혁신목회연구소

AI혁신목회연구소가 4월 13일 온라인으로 ‘제3차 AI를 활용한 성경 연구 및 설교 준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160명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AI 활용 성경 주석부터 설교까지’라는 주제로, 권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에스라 AI혁신목회연구소 대표, 김진하 백석대학교 교회사 은퇴교수 등 세 명의 강사가 나섰다.

첫 강의를 맡은 권호 교수는 ‘설교의 핵심 요소와 AI 활용의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에서 AI의 역할을 ‘조력자’로 규정했다. 그는 설교가 본문 이해(Meaning), 연관성(Relevance), 적용(Application)의 구조로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본문과 오늘의 삶을 연결하는 연관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본문 의미와 현대적 적용을 탐색하는 프롬프트 활용법을 시연하고, 이상적인 설교 구성 비율로 50:30:20을 제시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 김에스라 대표는 AI를 “문화 명령에 따른 기술이자 선한 도구”로 정의하며, 설교 준비의 균형을 위한 6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기도와 묵상, 본문 관찰, AI 활용 연구, 신학적 성찰, 설교 구성, 마무리 기도의 흐름 속에서 AI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ChatGPT, Claude, Gemini, NotebookLM 등 다양한 AI 도구를 성경 주해와 설교 구성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경계하며, 성경 구절과 통계, 신학적 내용은 반드시 설교자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기반 검색이 가능한 NotebookLM을 활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생각의 트리(ToT)’나 자기 성찰 기법을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설교의 깊이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강의에 나선 김진하 교수는 ‘AI 활용 교회 맞춤형 QT 가이드’를 주제로, AI가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묵상집의 흐름을 소개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묵상 방식도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큐티 자료의 획일성을 지적하며, AI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본문 선택과 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 활용 방식으로 목회자가 내용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 성도가 직접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병행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안했다. 동시에 비판적 사고 없이 교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계하며, AI를 통해 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대광기총, ‘종교법인 해체법’ 반대 서명운동 전개

디지털 플랫폼 통해 참여 독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대광기총)가 이른바 ‘종교법인 해체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광기총은 디지털 서명 플랫폼 ‘아이언돔’을 통해 민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반대, 태아 생명권 수호 등 3대 이슈에 대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3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심하보 총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민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의 공적 역할과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광기총은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종교법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종교의 사회적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영진 부산기독교연합회 직전 대표회장, 이구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노곤채 사무총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영진 목사는 해당 법안이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후 약 34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광기총은 이를 계기로 교계 내부를 넘어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심하보 총회장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공적 역할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계의 의견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움직임이 특정 집단을 향한 대립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유와 질서를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광기총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대광기총

대광기총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아이언돔’(http://2.kkca.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향후 교계 연대와 다양한 방식의 의견 개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교육의 신앙 정체성, 내면적 신앙 넘어 공동체적 실천으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전환기 시대 기독교교육’ 학술대회 개최… 신앙 정체성 모색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6 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6 춘계학술대회 현장의 모습.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고원석)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교회에서 ‘전환기시대, 기독교교육의 신앙 정체성 모색’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과 신앙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회는 전환기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신앙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접근을 시도하며,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독교교육의 신앙 정체성을 단순한 교리나 제도적 틀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와 삶의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점이 강조됐다.

◈전환기 시대 속 기독교교육의 신앙 정체성 모색 강조

고원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환의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은 기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회는 신학적 성찰과 교육적 실천을 통합하는 지혜를 요청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는 신앙의 정체성을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 서사와 삶의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고 해석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며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기독교교육이 직면한 해석학적 과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신앙 형성의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사적 정체성과 신앙 형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

이날 주제발표는 장종혁 박사(예나대학교)가 맡아 ‘신앙과 서사적 정체성: 폴 리쾨르의 공동 서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박사는 프랑스 철학자 폴 리쾨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신앙 형성 과정을 서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리쾨르는 시간과 이야기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경험한 시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으며, 이 경험은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경험이 결합되어 ‘이야기된 시간’이 형성되고, 이는 곧 인간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

장 박사는 “모든 경험이 언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로 표현된 경험은 곧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며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의 총체로서 존재하며,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다.

또한, 리쾨르의 정체성 개념이 지속성과 변화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하나는 성격과 같은 반복되는 동일성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타자성과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이다. 이 두 요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공동의 서사”

장 박사는 서사적 정체성을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서술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특히 “우리 삶의 사건들은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때 정체성이 형성된다”며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다시 서술하느냐에 따라 정체성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리쾨르의 저서 「타자로서 자기 자신」에 나타난 질문을 중심으로 인간 정체성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놓여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변화하는 존재에 지속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며, 그 시선이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사적 정체성은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형성되는 공동의 이야기”라며 “하나님이 인간 삶의 공동 저자로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의미와 방향성이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은 재해석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새롭게 형성된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서사적 정체성은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대까지 포함하는 전망적 정체성”이라며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곧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를 새롭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기독교교육의 신앙 정체성, 공동체적·윤리적 책임 강조

그는 서사적 정체성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서술하며, 이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말을 지키는 것은 곧 존재를 지키는 일이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책임 있게 서술하는 주체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함께 서사적 정체성은 하나님뿐 아니라 타자와 함께 형성되는 공동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기독교교육의 신앙 정체성이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윤리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발표 이후 남선우 박사(열림교회, 연구윤리위원회 총무)의 연구윤리 교육이 이어졌으며, 이후 포스터 발표와 분과별 학술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감사패 증정식도 진행됐다.


감사패를 증정 후 기념촬영.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장지동 기자

교회언론회 “대안학교 규제 법안, 교육 다양성 훼손 우려”

‘극우세뇌교육퇴출법’ 명명 비판…“기독교 대안학교 겨냥 가능성”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최근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일부에서 ‘극우세뇌교육퇴출법’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역사 인식 문제를 특정 시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역사 왜곡 교육이 이뤄질 경우, 운영 등록 취소와 재정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립·운영자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신원 조회 요청,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교육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내용의 이념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최근 사회 갈등 구조와 관련한 통계를 언급하며, 이념 갈등이 심화된 원인을 특정 교육 방식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기독교 계열 대안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회는 “국내 대안학교 상당수가 기독교 계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 교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교육 정책이 다양한 가치와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공교육 내 성경적 가치·표현의 자유 되찾는다”

미국 전역 ‘찰리 커크 법안’ 열풍
보수 청년 리더 추모 속
20개 주 60여 법안 쏟아져

작년 미국 유타주 강연 중 불의의 사고로 암살된 ‘터닝포인트 USA(TPUSA)’의 설립자 찰리 커크의 유산이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공화당 주 정부들이 그의 이념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가치의 회복’이라는 찬성과 ‘인종차별’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붙고 있다.

테네시주가 최근 통과시킨 ‘찰리 커크 미국 유산법’은 교육 현장에 종교적 색채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 법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미국 역사에 끼친 ‘유대-기독교 가치관’의 긍정적 역할을 가르치도록 허용한다. 청교도의 정착부터 빌리 그래함 목사의 사역까지 19가지 사례가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이에 민주당은 “공립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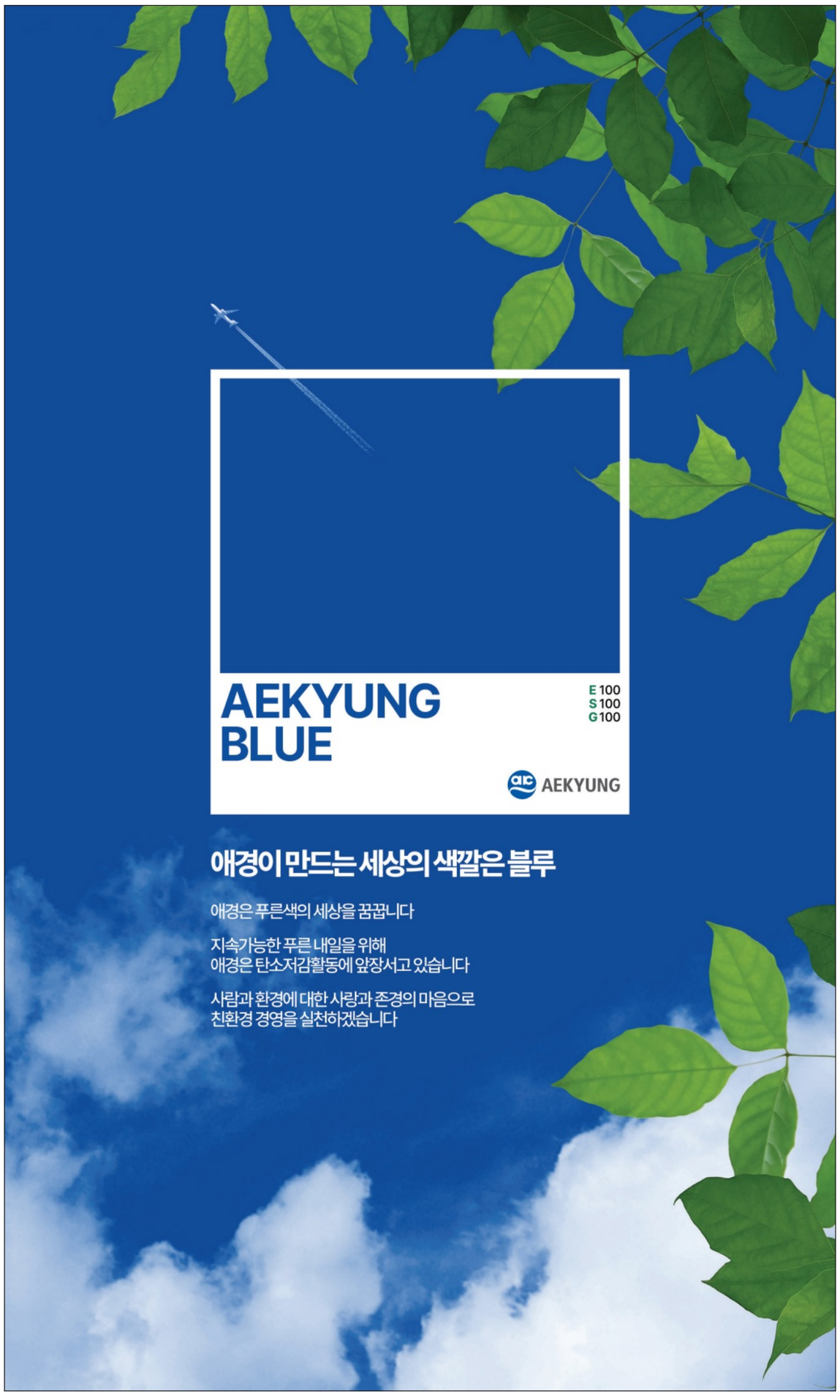
캔자스주에서는 2024년 캔자스 주립대 강연 당시 커크의 마이크가 강제로 차단됐던 사건을 계기로 ‘캔자스 지적 권리와 지식(KIRK)법’이 탄생했다. 대학 캠퍼스 야외 공간을 ‘자유 표현의 구역’으로 명문화하고, 학교 측이 학생 단체에 과도한 보안 비용을 청구하거나 특정 구역으로 발언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능해진다.

루이지애나주가 추진 중인 ‘찰리 커크 성공 순서법’은 고교 졸업 후 즉시 취업 혹은 진학, 그리고 ‘출산 전 결혼’이라는 ‘성공의 순서’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내용이다.


찰리 커크. ©Turning Point USA

현재 미 전역 20여 개 주에서 60개가 넘는 ‘커크 관련 법안’이 쏟아지는 현상을 두고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TPUSA 측은 “지적 다양성을 회복하고 미국의 핵심 가치를 되찾는 승리”라며 반기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가 생전에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했다며 문제 삼는다.

김민선 기자



자살 예방과 공동체 회복… 조성돈 목사 “연결이 삶을 살린다”

한국 사회 ‘죽음의 문화’ 진단… 교회와 사회의 인식 전환 필요성 강조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조성돈 목사는 그렇게 사람을 다시 관계 속으로 이끄는 과정이 곧 자살 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의 대표 조성돈 목사〈사진〉는 자살 예방의 본질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찾는다. 그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립된 개인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자살 예방의 본질: 연결과 회복

조 목사는 자살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속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단절된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살 예방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이 다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자살률의 구조적 배경: ‘죽음의 문화’

조 목사는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 배경으로 이른바 ‘죽음의 문화’를 지목했다. 경제적 성공과 성취가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실패를 곧 삶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성공하는 법은 배웠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회의 역할: 배제에서 포용으로

조 목사는 한국 교회 역시 자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부 관행이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포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 문제를 단순한 도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교단에서 자살자 장례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점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금기를 완화하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프호프 사역: 인식 변화 중심의 자살예방

조 목사는 2012년 설립된 라이프호프를 통해 자살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상담 중심 접근에 더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살 예방 정책이 사후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라이프호프는 생명 존중 캠페인과 교육,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살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자살예방 정책과 국가의 역할

조 목사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제도와 환경 개선을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자살 예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코로나 이후 확산된 비대면 헌금… 은행권 디지털 종교 서비스 경쟁 확대

모바일 헌금·봉헌 시스템 다양화… 교회·성당·사찰 참여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시작된 비대면 헌금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은행권의 디지털 종교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종교활동이 확대되면서 등장한 모바일 헌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종교단체와 신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우려해 종교계에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온라인 예배 환경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은행권은 이를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보고 디지털 종교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현재 관련 서비스는 기능 개선과 플랫폼 확장을 거치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확대된 비대면 헌금 서비스… 디지털 종교 서비스 성장

디지털 종교 서비스는 종교활동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자리 잡았다. 비대면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헌금 기능이 필요해졌고, 금융권은 간편이체와 자동납부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특히 디지털 헌금 시스템은 종교단체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신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9월 개신교 교회를 대상으로 ‘디지털헌금바구니’를 출시하며 관련 서비스를 가장 먼저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헌금봉투 형태를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해 헌금 봉투 색상과 성경 문구 설정 기능을 제공했다. 교회는 헌금 내역과 기도 제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후 KB국민은행은 2023년 6월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KB마음더하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은 교회뿐 아니라 성당, 사찰, 기부단체 등 다양한 종교 및 공익 단체에 기부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등록된 기관은 교회 약 360곳, 성당 5곳, 사찰 80여 곳, 기부단체 415여 곳 등 총 8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는 원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디지털 종교 서비스는 단순한 헌금 기능을 넘어 종교단체와 신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종교단체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 경쟁 확대… 모바일 헌금·봉헌 서비스 다양화

하나은행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하나원큐 모바일헌금’을 선보이며 디지털 종교 서비스 시장에 참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간편이체 방식으로 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종교단체는 헌금 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교회의 내부 정보 보호를 고려해 모바일헌금시스템(CMS)을 교회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우리카드와 협력해 천주교 비대면 봉헌 서비스인 ‘가톨릭페이’를 구축했다. 가톨릭페이는 천주교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톨릭 하상’과 연동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봉헌을 모두 지원한다. 신자 간 간편 송금 기능도 제공되며 실시간 봉헌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최승연 기자



이천중앙교회, 2026 전도부흥회 개최… ‘0점 인생 명품 인생’ 메시지 선포

하근수 목사 강사로 나서 나흘간 말씀 집회 진행… 지역사회 영적 회복 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천중앙교회(담임 김종필 감독)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도부흥회를 개최 중에 있다. 이번 집회는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0점 인생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전도부흥회는 2026년 봄을 맞아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교회 측은 삶의 가치와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이천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번 전도부흥회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집회 강사로는 동탄시온교회 담임목사이자 경기연회 제16대 감독을 역임한 하근수 목사가 참여한다.

하 목사는 저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로 알려져 있으며 신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목회자로 평가된다.

하 목사는 미국 오랄로버츠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협성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도부흥회는 나흘 동안 주일 오후와 평일 새벽 및 저녁 집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날인 19일 주일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본문을 통해 신앙의 목적을 점검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예정이다.

셋째 날에는 신앙인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본문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집회는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며 찬양과 기도, 말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도부흥회는 교회 내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승연 기자

“호르무즈 해협 대응에 한국도 역할을… 한미동맹 실천으로 보여야”

샬롬나비, 논평 통해 기뢰 제거·군함 파견 등 공조 촉구

행동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20일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조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 보장을 위해 한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기뢰 제거함과 군함 파견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참여 부족을 지적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한미 간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샬롬나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해협 안전에 협력해달라는 것은 합리적 요구”라며, 국제 해양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무역의 핵심 통로로,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교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지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트남전 파병과 2021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한국 선박 나포 당시 대응 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맹은 행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 역시 국제적 책임과 국익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일부 국가들이 적극적 군사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샬롬나비는 “국가 간 동맹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개혁신학의 정체성 형성”

개혁신학회 제46차 학술대회 개최,
‘칼빈 기독교 강요’ 중심으로 개혁신학 계승 조명


개혁신학회 제46차 정기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혁신학회

개혁신학회(회장 문병호)가 최근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제46차 개혁신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대주제로 삼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의 정통성과 계승 구조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계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칼빈 신학의 핵심 저작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현대적 해석과 신학적 의미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칼빈 ‘기독교 강요’ 중심으로 개혁신학 체계 재조명

주강연에 나선 문병호 박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개혁파 조직신학 체계와 교리적 요체’를 주제로 발표하며, 칼빈 신학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후대 신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그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경의 교사’로 부름받아 성경을 해석하고 변증하는 신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며 “칼빈의 신학은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실천적 신학이었다”고 했다.

문 박사는 특히 칼빈이 ‘망명객 종교개혁’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신학을 전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칼빈의 신학이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상황에 토착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에 근거한 보편적 신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과 견고함이 드러난다”며 “이러한 신학적 태도는 칼빈이 당대의 다양한 신학적 논쟁, 곧 계시론과 삼위일체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성례론, 예정론, 자유의지론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성경적 입장을 변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칼빈 신학의 정수를 「기독교 강요」에서 찾으며, 이 저작이 단순한 신학 서적을 넘어 교리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조직신학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며 “1559년 최종판 기준으로 4권 80장으로 구성된 「기독교 강요」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으로, 유려한 문체와 명확한 논리 구조를 통해 교리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이 유럽과 영미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개혁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침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문 박사는 「기독교 강요」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 저작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유기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과 삶의 실천을 함께 이끌어내는 체계이다. 특히 로마서의 신학적 흐름이 이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 성격 속에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튜레틴·핫지·바빙크·워필드로 이어진 개혁신학 계승

문병호 박사는 칼빈 신학이 후대 신학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며, 개혁신학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테오도르 베자를 거쳐 프란시스 튜레틴에 이르는 흐름 속에서 「기독교 강요」의 신학이 보다 체계화되고 논증적으로 정교해졌다”며 “찰스 핫지와 헤르만 바빙크가 이를 계승하여 각각 영미권과 유럽 대륙에서 개혁신학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필드의 신학은 칼빈 신학을 심화한 사례로 제시됐다. 그는 “워필드가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무오성을 강조하며, ‘교훈적이며 변증적인 신학’을 전개했다”며 “워필드는 성경의 사실에 충실한 신학을 통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했으며, 이는 「기독교 강요」와 교리적으로 깊은 일치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박사는 “이들 신학자들이 완전히 동일한 신학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중심이라는 공통 원리 안에서 신학적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했다”며 “특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 tota)’이라는 원칙 아래 성경의 가르침만을 신학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신학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개혁신학의 핵심으로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제시했다. 문 박사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구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성경 계시가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보았으며, 모든 구원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며 “이러한 관점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언약신학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구속사적 관점에서 전개된다. 성부의 작정,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이라는 구속의 질서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연합은 교회론과 종말론에서도 중심 개념으로 작용한다”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지체들의 연합 공동체로 이해되며, 종말은 그 연합이 완성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문 박사는 마지막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된 빛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며, 이 저작이 성경의 진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후대 신학자들이 그 빛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의 신학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겸손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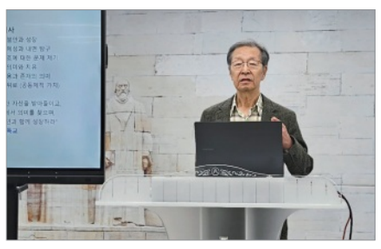
◈분과 발표 통해 다양한 신학 주제 심층 논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주강연 이후 세 차례의 분과 발표가 이어졌다. 1차 발표에서는 김요섭 박사와 문형철 박사, 이성훈 박사가 각각 칼빈의 종교개혁 이해와 성경 주해의 특징, 성령론적 관점 등을 다뤘다. 이어진 2차 발표에서는 송영목 박사와 이충만 박사, 강병훈 박사가 교회 질서와 유아 세례의 신학적 근거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3차 발표에서는 조윤호 박사와 최윤정 박사, 허동원 박사가 종말론적 긴장과 신학적 인식론, 예정론의 영향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각 발표는 개혁신학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해석의 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혁신학회 정기 학술대회는 전 일정이 마무리된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종료됐다. 장지동 기자

“현대 대중문화 속 세계관, 기독교적 분별 필요”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 성과연 월례강좌서 분석


민성길 교수가 성과연 4월 월례강좌에서 강연하고 있다. ©성과연

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가 최근 서울 한신인터밸리 지하 2층 강의실에서 4월 월례강좌를 열고, 대중문화 속에 담긴 세계관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방탄소년단, 『데미안』, homosociality,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현대 청년문화와 문학, 사상 간의 연결 구조를 분석했다.

민 교수는 먼저 방탄소년단의 인기 요인으로 음악성과 퍼포먼스뿐 아니라 서사 구조와 세계관을 꼽았다. 특히 ‘BTS 유니버스(BU)’에 대해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고통-죄-구원’이라는 종교적 구조를 닮아 있다”며, 반복되는 실패와 선택, 관계 속 구원 서사가 현대인에게 일종의 ‘종교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미안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자아 발견과 선악의 공존, 성장과 고통이라는 주제가 BTS의 콘텐츠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작품 속 ‘아브락사스’ 개념이 인간 내면의 빛과 어둠을 함께 포괄하는 상징으로 활용되며, 이러한 요소가 음악과 영상 서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민 교수는 이러한 흐름이 영지주의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영지주의는 인간이 ‘지식(영지)’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으로,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자기 인식과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는 BTS 세계관 역시 “외부의 신이 아닌 개인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구조”를 보인다며, 전통적 기독교 구원관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연에서는 ‘호모소셜리티(homosociality)’ 개념도 함께 다뤄졌다. 이는 남성 간의 친밀한 사회적 유대 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민 교수는 BTS와 『데미안』 모두에서 남성 간 관계가 중심 서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동성애와 구별되는 비성적 친밀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해석에서 과도한 확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교수는 또 해당 콘텐츠들이 자기 구원 서사를 강조하고, 고통과 트라우마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처와 치유의 서사가 청년층의 공감을 얻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복 구조와 상징화 속에서 현실 문제 해결 방식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가 우리를 구한다”는 메시지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분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대 대중문화는 종교적 질문을 담고 있지만, 그 해답은 성경적 관점과 다를 수 있다”며 “이러한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성경적 기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 강화도·교동도 정기답사 진행

선착순 40명 모집… 5월 9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부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가 강화도와 교동도 지역 기독교 유적을 탐방하는 정기답사를 진행한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는 ‘토박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빚은 강화도 행전’을 주제로 한 ‘제53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정기답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오는 5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강화도와 교동도 일대의 기독교 유적과 역사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해설은 인천중앙교회 담임이자 한국기독교문화유산연구회 부회장인 이창재 목사가 맡는다.

참가자들은 합정역에서 출발해 더리미 순국터, 연미정(승천포·산이포), 교산교회, 교동교회, 박두성 장로 생가, 홍의교회 등을 둘러보고, 점심 식사 후 강화 남문, 합일초등학교, 강화중앙교회, 성공회 강화읍성당, 3·1운동 기념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나눔의 시간을 가진 뒤 서울로 돌아와 합정역에서 해산한다. 다만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및 참가비 입금 순으로 마감되며, 참가비는 6만9천 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전화, 구글폼, 이메일, QR코드를 통해 신청한 뒤 참가비를 송금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02-2226-0850, 이메일 ikch0102@hanmail.net)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 4일 전인 5월 10일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출발은 5월 14일 오전 8시 정각이며, 참가자는 오전 7시 40분까지 합정역 2호선 9번 출구 인근에 집결해야 한다. 준비물은 간편한 복장과 휴대용 이어폰, 물, 모자 등 개인 용품이다. 장지동 기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 2026 VBS 'Illumination Station' 개최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대상 무료 여름성경학교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Illumination Station' 2026 여름성경학교(VBS)를 개최한다.

올해 VBS의 주제는 'ILLUMINATION(요한복음 8장 12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배우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VBS는 올해도 성경공부를 비롯해 찬양과 율동, 다양한 게임, 크래프트 활동, 간식 및 그룹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말씀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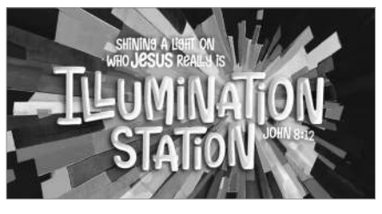
VBS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참가 대상은 2026년 6월 기준 만 3.5세 이상(프리스쿨)부터 현재 6학년까지의 어린이이며, 참가 어린이는 반드시 기본적인 배변 훈련이 완료되어야 한다.

교회 측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 VBS에 많은 가정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 전화 253-535-2240 / 이메일 tfbc.jy@gmail.com)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BS 등록은 온라인 링크(클릭)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 'Magnified! VBS 2025' 여름성경학교 기념촬영 ⓒ교회 측 제공

애틀랜타 아동 6명 중 1명 배고픔…식량 위기 심화

푸드뱅크 수요 급증·인플레이션 영향…지역사회 우려 확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아동 6명 중 1명이 배고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량 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뱅크에 따르면 현재 매달 약 30만 가구가 식량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4년 사이 식료품 배급소 이용자는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관계자인 그렉 심스는 "이웃과 아이들, 노인뿐 아니라 성실히 일하는 성인들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식량 불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특히 아동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가운데 약 6명 중 1명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실제 생활 속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스는 "주거비와 공과금은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이기 때문에 결국 식비를 먼저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아동의 식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수요 급증… 인플레이션 영향 확대

애틀랜타 식량 위기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식량 지원 기관에 의존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푸드뱅크는 현재 조지아 전역 약 700개의 식료품 배급소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식료품 배급소 방문자가 70% 증가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애틀랜타 커뮤니티의 푸드뱅크 모습. ⓒ현지 보도 영상 캡처

◈기부 캠페인 확대… 지역사회 대응 지속

푸드뱅크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Fight Hunger, Spark Chang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Walmart과 Sam's Club 매장에서 결제 금액 반올림 기부나 특정 상품 구매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푸드뱅크 측은 모금된 금액이 전액 지역사회 식량 지원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당 캠페인을 통해 약 40만 달러가 모였으며, 이는 100만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활용됐다.

◈식량 불안 확산… 지속적 지원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애틀랜타 식량 위기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식량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스는 "식량 불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푸드뱅크는 식량 지원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홍은혜 기자

조지아주 남침례회, '2026 예수 복음 비전 축제' 개최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데이빗 목사)가 오는 5월 초, 지역 복음화와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오는 5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사흘간 로렌스빌에 위치한 한비전교회(담임 이재원 목사)에서 '2026 예수 복음 비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성경의 대 주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뜨거운 찬양과 말씀의 잔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의 강사로는 한국 인천 하늘향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선위 목사가 초청됐다. 이 목사는 백석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요셉의 창고 미니스트리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복음 소책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도들을 위한 부흥 집회에 이어, 현직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5월 4일(월) 오전 10시, 동일한 장소인 한비전교회에서 이선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다. 조지아 지역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목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적 교회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교단 안팎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 속에 치러진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부(GBMB)와 귀넷 메트로 침례교 네트워크(GMBN)가 후원하며, ATI Mission, 미주침례신문, 러브터치, 라이프 플러스 패밀리 센터, BlueSono USA Inc 등 다수의 선교 및 협력 기관들이 힘을 보탰다.

협의회 회장 김데이빗 목사는 "이번 비전 축제를 통해 조지아 지역 모든 한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부고

나바호의 친구, 이남종 선교사 향년 64세로 별세

아리조나주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이남종 선교사가 지난 2026년 4월 14일(화),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4세.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CKSBCA)에 따르면, 고인은 14일 오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소천했다.

이남종 선교사는 북가주 뉴라이프교회(담임 위성교 목사)로부터 파송을 받아,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Flagstaff) 지역을 거점으로 나바호 인디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매진해 왔다. 그는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호흡하며 '나바호 인디언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원주민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곁에는 평생 사역의 동반자였던 이선희 사모와 자녀들이 있다. 미주남침례회 총회와 교계 인사들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이남종 선교사의 삶은 미주 한인 선교 역사의 귀한 자산"이라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유가족과 총회 측은 고인의 평생 사역지였던 나바호 현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나바호 인디언 선교센터 (Navajo Indian Mission Center) 김민선 기자

선한목자교회, 한국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초청 봄 부흥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오는 5월 6일(금)부터 5월 10일(주일)까지 김병삼 목사(한국 만나교회 담임목사)를 초청해 2026년 봄 부흥회를 연다.

[일정]

5/8 (금) 7:30 pm / 5/9 (토) 6:30 am, 7:30 pm / 5/10 (주일) 8:30 am, 12 pm (주일 당일 1-2부 연합) 김민선 기자



의사이자 아티스트 이진영 원장 “자신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길”

문화비전코리아와 함께하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7) 피부과 의사

이진영 피어봄의원 청담점 원장 인터뷰

현대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2020년 발간된 ‘한국 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은 대한민국의 직업 수를 1만 2,923개, 직업명은 1만 6,891개로 보고했다. 그리고 이젠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전 지구적 환경문제 등으로 직업군이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 기존 직업군이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빠르게 생겨나기도 하는 시대를 맞아 문화비전코리아와 본지가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군들을 조사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신소율
NLCS 10학년
문화비전코리아
학생회원

피부과 의사가 되는 길은 험난하기로 유명하다. 그 치열한 과정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동시에 가수로서 무대에 서고 사업가로서 브랜드를 창업하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 미래에 피부과 의사이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가를 꿈꾸면서 막연한 고민을 안고 있던 중, 의사이자 가수라는 독보적인 길을 걷고 계신 이진영 피어봄 청담점 원장님을 알게 되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선배님께 직접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았다.

–피부과는 전공의 선발 과정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저만의 브랜드를 창업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혹독한 수련 과정 중에도 의학적 지식 외에 특히 어떤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수련 과정 자체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훗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창업은 결국 사업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의학적인 능력 외에도 다른 역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학도들은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취향과 가치 기준을 확실히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힘과 관계를 쌓는 사회성, 마지막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련 기간은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나중을 위한 준비를 놓치기 쉬워요. 학생 때나 수련의 시절에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에 자신의 브랜드나 사업을 시작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피부 질환은 육안 감별이 중요해 공부가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피부 관련 기술이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의학 과목은 무엇인가요?

“기술이나 제품 개발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기초 의학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과는 눈으로 진단하는 학문이지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피부과학 자체보다 병리학이나 면역학적인 이해가 훨씬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결과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에는 분명 한계가 생깁니다. 어떤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변화가 진행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저는 과학만으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소양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새로운 것은 과학과 인문,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경험이 새로운 피부 관련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회사를 경영할 때,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임상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가 쌓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술을 해도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고, 같은 고민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런 차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까’, ‘왜 이 케이스는 다르게 흘러갈까’ 하는 질문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술 방법이나 제품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진료실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막연하게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눈앞의 한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훨씬 현실적인 방향을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가수 활동을 통해 발휘하시는 ‘예술적 감성’이 환자를 위한 메디컬 서비스 기획이나, 브랜드의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인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가수 활동은 제게 또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각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노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경험은 환자 상담이나 공간 구성, 브랜드 이미지 설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사람은 결국 논리보다 감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도 감정적인 경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치료 결과만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경험까지 함께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학과 예술이 분리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사람을 향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영 피어봄 청담점 원장은 피부과 의사이자 가수, 사업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진영 원장은 “안정적인 길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 모두를 진지하게 대하며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두 영역이 연결되고, 그때부터는 차별화가 된다”고 말했다. ⓒ신소율 학생 제공

“수련 때부터 취향·사회성·목표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것 좋아
선택한 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일관성 갖는 것이 중요

스스로를 알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 통해 스스로 확신 가지길
선택 어려우면 우선은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

–의사와 가수라는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미래에 진료와 기업 운영을 동시에 해내기 위해 지금부터 길러야 할 체력이나 멘털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 관리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운동과 수면, 감정 컨트롤을 기본적인 루틴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예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감각을 가져야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죠.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만큼이나 멘털 관리도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원하는 방향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가면 된다고 봐요.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전문의라는 본업 외에 예술이나 사업 등 다른 분야에 도전할 때,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이나 현실적인 제약들을 어떤 논리와 확신으로 설득하고 극복하셨나요?

“처음에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왜 의사는 하나의 역할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정체성만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죠. 내가 선택한 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그 과정이 일관성을 가진다면 주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결국 설득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런 부분이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단순히 의사에 머물지 않고 원장님처럼 ‘나만의 콘텐츠’를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시기에 입시 공부 외에 어떤 경험들을 쌓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 경험을 꼭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대에 서보는 경험,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경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험은 이후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눈앞의 작은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이자 사랑받는 가수로서 두 가지 삶을 살고 계시는데, 원장님께서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저는 두 가지 역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껴요. 진료를 통해 누군가의 외적인 변화와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순간과, 무대에서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순간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닮아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매일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삶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두 영역 모두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때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의사를 꿈꾸면서도,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원장님처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길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어떤 선택이든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듯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진지하게 대해야 해요.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두 영역이 연결되고, 그때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차별화가 됩니다.

만약 선택이 어렵다면 우선은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이라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잘하는 일은 언제든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도전할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글=신소율 NLCS 10학년(문화비전코리아 학생회원)
편집=이지희 기자



“美 고급 성경 판매 급증…팬데믹 이후 ‘신앙·안정’ 찾는 수요 확대”

미국에서 고급 성경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며 일부 제품은 400달러에 달하는 등 프리미엄 성경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돼 주요 국제 정세 변화와 사건들을 계기로 재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일반 성경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고급 성경은 가죽 제본과 정교한 삽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온라인 성경 판매 사이트 ‘에반젤리컬바이블닷컴(EvangelicalBible.com)’과 슈일러 성경 출판사(Schuyler Bible Publishers)의 창립자 스카이 클라인(Sky Cline)는 팬데믹 기간 동안 성경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분야 전반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인공적인 디지털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성경 애플리케이션 유버전(YouVersion)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성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버전은 2025년 11월 기준 10억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또한 중동과 동유럽의 긴장 상황, 그리고 찰리 커크(Charlie Kirk)의 피살 사건 등 주요 사건 이후 성경 판매가 급증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2025년 9월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USA 창립자인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대학에서 피격 사망한 이후 고급 성경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목회자들은 해당 사건 이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회 출석률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성경 시장 확대는 개신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톨릭 미디어 단체 워드 온 파이어(Word on Fire)는 2020년 ‘Word on Fire Bible’ 시리즈를 출시했으며, ‘인쇄된 대성당(A Cathedral in Print)’이라는 콘셉트로 종교 미술 작품과 해설을 포함해 지금까지 50만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가들 역시 시장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성경 수집가 블레이크 무지크(Blake Musick)는 현재 약 70권의 성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고급 성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중요한 책이라면 좋은 품질의 사본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여러 보고서 역시 성경 판매 증가 추세를 뒷받침한다. 미국에서는 2025년 성경 판매량이 약 1,900만 권에 달하며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 2019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출판 데이터 분석기관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희망과 공동체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신앙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도 SPCK(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조사에 따르면 성경 판매는 2019년 269만 파운드에서 지난해 630만 파운드로 106%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번역본은 ESV(English Standard Version)으로 나타났다.

한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관심 증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유고브(YouGov)가 성서공회(Bible Society) 의뢰로 진행한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 보고서는 초기에는 종교 관심 증가를 시사했으나, 이후 일부 응답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철회됐다. 이에 성서 공회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보고서를 통해 종교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美 장로교, 헌금 감소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미국 장로교(PCUSA)가 최근 일부 교인들의 헌금 중단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교단의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PCUSA, A Corporation’은 최근 연구 서비스 부서의 숀 페인(Sean Payne)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를 통해 장로교인들이 헌금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사이 마지막으로 헌금을 한 1만7천여 명의 기부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 가운데 1,27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진행됐으며 “왜 헌금을 중단했는가”와 “다시 헌금을 고려하게 만들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헌금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교회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21%는 “다른 단체나 사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경제적 요인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1%는 “개인 또는 가족 상황의 변화”를, 7%는 “더 이상 헌금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교단 정책에 대한 이견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7%는 “총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는 “교단 구조 개편 계획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헌금 재개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는 “투명성과 스토리 전달”, “개인의 재정 여력 회복”, “교단 입장 변화”, “지정 헌금 기회 제공” 등이 꼽혔다.

이번 보고를 의뢰한 청지기직 및 기금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미국 장로교(PCUSA) 본부. ©PCUSA

개발 부서의 존 윌킨슨 목사는 해당 설문을 “매우 유익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선의가 존재하며, 특히 사역의 영향을 보여주는 이야기 전달이 현재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PCUSA는 지난 수십 년간 교인 수와 헌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24년 여러 부서와 사역을 통합·조정하는 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총회 서기 지현 오 목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오늘날 교회와 사회, 교단의 필요에 맞게 총회 산하 기관들의 사역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단 규모는 기존 구조가 마련될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주 패턴의 변화로 글로벌 이웃이 지역 사회로 들어오면서 지역과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관 지도자들과 행정 서비스 그룹, 통합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교단의 비전과 가치, 사역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사역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英 생명단체 “조력 자살 반대,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해야”

영국의 친생명 단체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이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및 잉글랜드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조력 자살 문제를 주요 정치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조력 자살 법안이 일부 지역에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관련 법안이 이미 부결됐으며, 영국 의회(웨스트민스터)에서 논의된 법안 역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선거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대표 알렉스 콜-해밀턴은 조력 자살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팔코너 경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을 시도해 왔다. 그는 당시 ‘검시관 및 사법 법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의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 했으며, 현재까지 총 일곱 차례 관련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낫 킬링의 고든 맥도널드 대표는 조력 자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이 취약계층이 강요에 의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콜-해밀턴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조력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라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웨일스 의회 역시 영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 지방의회는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생애 말기 돌봄과 밀접한 조력 자살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경 기자

英 주교 “기독교 유산 침식… 국민 회개와 신앙 회복 촉구”

영국의 한 성공회 계열 선교 주교가 국민들에게 회개와 기독교 신앙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고백성공회(CAC) 소속 선교 주교 세이리온 H. 듀어는 최근 공개 서한을 통해 영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유산의 약화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설립된 CAC는 성공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영국 초기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듀어 주교는 최근 찰스 3세 국왕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영국의 기독교 유산이 침식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왕이 라마단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한 반면 부활절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점을 두고 일부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듀어 주교는 이러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 국민을 향한 서한에서 “기독교는 과거 영국 사회의 중심이었으며, 국가의 제도와 도덕, 관습이 형성되는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기반이 점차 다른 가치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듀어 주교는 “한때 제도를 형성하던 도덕적 언어가 체계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교회 내부에서도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약화되고 시대적 요구가 하나님



©pixabay

의 말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진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쇠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쇠퇴의 원인으로 시대 정신에 타협하는 태도를 지목하며, 그 결과 국가의 정체성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를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다. 정치 이상의 더 깊은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감각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듀어 주교는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회개와 진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시대에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요구하며, 공동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공적 영역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영국 국민에게 회개의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이미경 기자



Marcham+10 컨퍼런스 개최… 여성 종교 자유 침해 대응 전략 모색

여성 종교 박해 문제 국제 협력 확대…
연구·정책·신앙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Open Doors International에서 활동해 온 젠더 기반 종교 박해 분야 전문가 헬렌 피셔가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Marcham+10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종교 박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Marcham 운동이 1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월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Marcham+10' 컨퍼런스는 젠더 기반 종교 박해 문제를 조명하고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18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국제 인권 활동가와 연구자, 신앙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종교 자유 침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정책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난 2016년 처음 열린 Marcham 회의 이후 변화된 환경을 평가하는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종교 박해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신앙과 성별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젠더 기반 종교 박해 연구 확대… 여성 취약성 문제 지속 제기

젠더와 종교 자유 문제를 연구해 온 GRF(Gender and Religious Freedom)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케이트 워드는 초기 연구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취약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 박해 상황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과 공동체 내부의 구조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워드는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진행한 현장 경험을 통해 여성들이 종교적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정과 공동체 내부에서 낮은 지위에 놓이는 사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신매매나 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보고됐다. 초기에는 개별 사례로 인식됐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별에 따라 종교 박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로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 자유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분석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오픈도어(Open Doors International)의 레이첼 몰리는 2018년 이후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박해 방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여성은 강제 결혼이나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은 공동체 지도자 역할과 관련된 이유로 공격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Marcham 2016 이후 협력 확대… 국제 정책 논의 영향

2016년 개최된 Marcham 회의는 종교 박해와 젠더 문제를 함께 논의한 초기 국제 협력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와 협력 활동이 이어졌다.

워드는 초기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협력 관계 형성을 꼽았다. 그는 "참가자들이 함께 연구와 정책 활동을 이어가면서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후 유엔 논의 과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젠더 기반 종교 박해'라는 용어가 정책 논의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점도 주요 변화로 언급됐다. 해당 개념은 영국 의회 토론과 국제 정책 논의에서도 활용되며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 to the Church in Need의 마르셀라 시만스키는 "종교 자유 침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들이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 납치와 성적 착취 문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 대상 폭력 문제 지속… 종교 정체성과 복합적 영향 분석

국제 개발단체 Tearfund 전 대표 일레인 스토키는 발표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세계 여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과 소녀들이 어린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토키는 성 선택적 낙태와 여성 할례, 아동 결혼, 인신매매, 가정폭력, 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적 정체성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는 성폭력이 전쟁 전략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신학적 성찰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차성 관점 강조… 종교 여성 경험 반영 필요성 제기

컨퍼런스에서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종교 박해가 종교뿐 아니라 계층과 민족,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논의됐다. CREID(Coalition for Religious Equality and Inclusive Development) 연구진은 여성 인권 논의에서 종교적 소수자 여성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백이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종교 정체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향후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재정 부족 문제 지적… 향후 연구와 협력 지속 기대

워드는 종교 박해와 젠더 문제 연구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와 현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Marcham+10 컨퍼런스가 향후 연구와 협력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종교 자유와 여성 인권 문제를 함께 고려한 연구와 정책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파키스탄 수도서 철거 강행에 충돌… 기독교 밀집 지역 주민 불안 고조

비공식 거주지 철거 재개에 시위 확산…
소수 종교 공동체 주거권 우려 제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비공식 거주지 철거 작업이 재개되면서 주민들과 당국 간 충돌이 발생했다고 4월 1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철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수 종교 공동체의 주거권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독교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3일 이슬라마바드 알라마 이크발 거주지(Allama Iqbal Colony), 일명 샤퍼 거주지(Sharper Colony)에서는 수도개발청(Capital Development Authority, CDA)이 경찰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 건축물로 규정된 주택 철거에 나서면서 주민들과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는 약 1,3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은 청소, 가사 노동 등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철거 작업을 둘러싸고 약 5시간 동안 긴장 상태가 이어졌으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당국이 일시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기독교 지도자 임란 샤자드 사호트라는 정부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봉쇄하고 일부 가정의 자물쇠를 파손한 뒤 가재도구를 거리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추가 철거가 예정된 건물들이 표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호트라는 오랜 기간 노동으로 마련한 집에서 보상 없이 쫓겨날 경우 생계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거주해 왔지만 대체 주거지를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적절한 보상과 대체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키스탄 철거 정책 확대… 기독교 공동체 주거권 우려 제기

수도개발청은 이슬라마바드 내 최소 4개 비공식 정착촌을 정비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소수 종교 공동체의 주거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을 경우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공식 정착촌은 주거 비용 부담이 큰 도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정식 주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 종교 공동체는 이러한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지역 지도자들은 정부가 강제 철거 대신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4월 14일에는 누르푸르 샤한(Noorpur Shahan) 지역에서도 유사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주민 간 충돌이 발생했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최소 8명의 경찰과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중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와 진압봉을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주택 상당수가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최근 6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1만3천 채 이상의 주택이 철거됐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비판 이어져… 강제퇴거 정책 개선 요구

인권단체들은 이번 철거 조치가 도시 빈곤층과 종교적 소수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는 4월 13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당국의 철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에는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해 비공식 거주지 강제 철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15년 파키스탄 대법원이 적법 절차 없이 비공식 거주지를 강제 철거하는 것을 제한한 판결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CP는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을 고려하지 않은 철거 정책이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RCP는 이슬라마바드 내 약 50만 명이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주택 정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서는 장기간 노동으로 형성된 정착촌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들은 강제 철거가 지속될 경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주요 도시 가운데 이슬라마바드가 비공식 거주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는 비공식 거주지를 도시 계획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활용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도입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거권이 파키스탄 헌법 제9조가 보장하는 생명과 존엄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국이 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강제 철거 대신 재정착과 주거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연 기자



장동혁 "미 공화당과 핫라인 구축"… 방미 성과 강조

한미동맹·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정부 외교·경제 정책 비판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열흘간의 미국 방문을 마친 뒤 방미 성과와 함께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미 성과… "미 공화당과 실질적 핫라인 구축"

장 대표는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방미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외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도 전달했다"며 "특히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과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경제와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인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일정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됐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 발언의 진의 등에 대해 미국 인사들이 질문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조… 경제·안보 협력 논의

장 대표는 이번 방미에서 대북 정책과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 가운데 대북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힘에 기반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하며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사태 등 국내 정책과 관련해 미국 측이 반복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며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방안과 기업 비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비판… "반미·반기업 정책이 경제 발목"

장 대표는 귀국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쿠팡사태를 비롯한 반미·반기업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미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진행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인사들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입법 과제 언급… 경제 환경 개선 필요성

장 대표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 환경이 악화되기 전에 노동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 활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경제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보장"… 인도와의 협력 강조

에너지 공급망·방산·조선 협력 확대 언급
중동 위기 대응 공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중 중동 정세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과 한·인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개된 인도 현지 매체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한·인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인도는 모두 에너지 수급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협력이 양국 공동의 국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 라슈트라바티 바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드라우파디 무르무(왼쪽 세번째)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에너지와 함께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인도는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첨단 제품으로 가공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양국의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방산 자립 정책을 지지한다"며 "공동 기술개발과 공동생산, 운용 및 정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통해 양국 방산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과 해운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항만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인도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건조한 선박이 세계 시장을 운항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보와 무역 질서에 대한 양국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는 여전히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범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지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이란, 미·파키스탄 2차 협상 거부 호르무즈 갈등 속 긴장 고조

해상 봉쇄·입장 충돌로 협상 불투명
트럼프 강경 발언 이어져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 및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2차 평화협상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협상 불참 선언… 갈등 심화 배경

이란은 협상 불참의 이유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되는 입장 변화, 그리고 해상 봉쇄 조치를 지목했다. IRNA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워싱턴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모순된 입장, 그리고 휴전 위반으로 간주되는 해상 봉쇄가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개최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미국 측 발표를 언론전을 통한 책임 전가 시도로 규정했다.

이란은 현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 통제권 문제 부각

이란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입장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해협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며, 선박 통항 여부를 이란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지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환경 보호와 해상 안전,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며, 군이 이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군사 대응 가능성 시사

이 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리와 발전소 파괴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필요할 경우 전례 없는 수준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이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미국의 조치가 이미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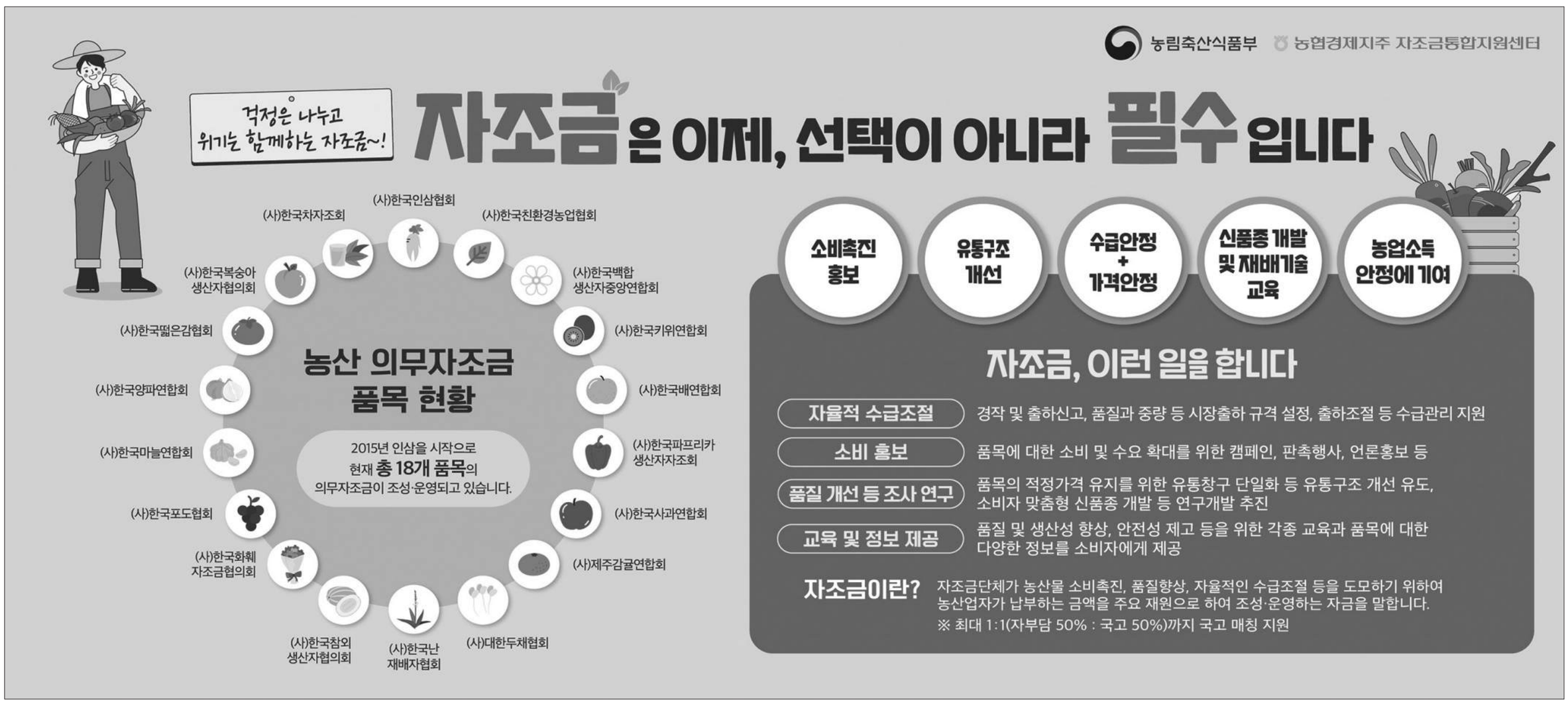
◈협상 결렬 이후 중동 정세… 불확실성 확대

앞서 이란과 미국은 4월 초 휴전에 합의하고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이후 미국은 호르무즈 해역에 대한 독자적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양측 간 긴장은 더욱 심화됐다.

최근에는 해상에서의 충돌과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2차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홍은혜 기자



청년 실업률 7.6%… 4년 만에 최고 수준

정부, 추경 투입해 청년 일자리·직업훈련 지원 확대 추진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7.6%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고용시장 위축 심화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청년 고용률은 43.6%, 청년 실업률은 7.6%로 각각 2021년 3월 이후 최저·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66만 1000명에 달해 청년 고용시장 전반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채용이 위축되고, 이는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보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청년층 고용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용 축소·경력 선호… 취업 문턱 높아져

현장 의견에서도 청년 고용시장 위축이 확인됐다.

노동부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수렴한 결과, 청년들은 신규 채용 감소와 경력직 선호 확대에 따라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부품 제조업과 수출입 관련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전쟁의 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청년 실업률 상승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추경 투입…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활용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노동부는 총 259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일경험과 직업훈련 등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가 운영기관 선정과 신규 훈련과정 확대,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현장 경험과 직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현장 영향 확대… 고용 불안 가시화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됐다.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으로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협력업체로 이어지며 고용 불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여행업 역시 고유가와 고환율 영향으로 일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직과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인천 동구는 철강업 위기로 인한 고용 둔화가 감지되면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 대응… 청년 일자리 위기 선제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전쟁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 도출

자녀 여권 의혹에도 경제 상황 고려해 보고서 채택… 소수 의견 병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경과… 논란 속 합의

당초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달 17일 보고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자녀의 여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야권에서는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후보자의 정책 관련 질의 응답을 언급하며 "주요 정책과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 총재는 도덕성과 원칙, 그리고 분명한 소신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자리"라며 "전문성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 고려한 결정… 공백 최소화 판단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 총재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고서 채택을 결정했다.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의 여권 사용 및 재발급과 관련된 사실은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 관계에 기반해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야권 측 의견은 인사청문보고서에 소수 의견으로 포함됐다.

◈신현송 후보자 평가… 국제금융·거시경제 전문가

신현송 후보자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활동해 온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인선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를 국제 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의 권위자로 소개하며,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동 정세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제시됐다.

이나래 기자

김민석 총리 "고유가 지원금 차질 없이 지급"…지방정부 신속 집행 주문

추경 지연 시 지급 차질 우려… 비상경제 대응 체계 점검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지원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주문하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고유가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 지방정부 집행 속도 관건

김 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이 예정대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일부 지방정부에서 추경 편성과 지방의회 통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경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 영향 점검… 섬 지역·필수 품목 대응

김 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현장 피해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 감소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연안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계획과 선사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 품목의 수급 안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생산과 유통, 온라인까지 포함한 전 과정에서 수급 안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 대응 강화… 순방 기간 국정 공백 최소화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 특히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대응반이 경제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거시경제·물가 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 증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유통 단계까지 포함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금융 대응… 공급망 안정 및 유동성 확보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정부 지원 상황과 국제 공조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원유 운반선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외교적 대응과 업계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수급반은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 항로를 통한 원유 확보와 함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은행·보험업권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나래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시편 132편이 가르쳐 주는 공동체 예배의 의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마크 크리치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왜 당신의 영혼에는 '혼자 드리는 예배' 이상이 필요한가: 시편 132편이 주는 교훈"(Why your soul needs more than 'solo' worship: Lessons from Psalm 132)을 4월 19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시편 132편은 이해하기 쉬운 시편은 아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약속을 내다본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진실로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시편 132:3-5).

이 고백은 매우 인상적이다. 다윗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 전까지는 나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겠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시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금까지는 다윗 개인의 갈망이 강조되었지만, 이제 그 갈망은 자신을 넘어 확장된다. 개인적인 열망이 공동의 예배로 이어지며 그의 고백은 공동체를 향한 초청이 된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리로다"(시편 132:7). 즉, 다윗의 열정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져 나간다. 그의 마음속 개인적인 부담이 이제는 공동의 추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으로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도전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굳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 해변에서도, 골프장에서도, 숲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시편 19:1). 신자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가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것을 대신하여 혼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는 않는다.

신약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히브리서 10:25).

개인적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해변에서 기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해변은 당신의 영혼을 목양해 줄 수 없다. 골프장에서 묵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페어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숲 속에서 경외심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숲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고립된 영성을 넘어서 훨씬 더 풍성한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셨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음에도 이 사실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장소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다. 예배는 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열망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가?"이다.

오늘날 예배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만 말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에 맞추어진 방식으로 예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는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 겸손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며,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른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다.

시편 132편은 이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를 전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시편 132:14).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마지못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삶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 위로는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된다.

삶이 흔들릴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내가 세웠다고 생각했던 삶의 토대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 임재는 개인적인 위로뿐 아니라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도 경험된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산만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때로는 의심을 품은 채 예배에 나올 수도 있다. 분노나 내려놓지 못한 쓴 마음을 안고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와 용서, 자비를 노래하는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듣는다. 스스로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다른 이들의 찬양을 듣게 된다.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우리는 혼자가 아닌 믿음에 의해 다시 일어서게 된다.

필자가 어린 시절, 지역 침례교회 목사님이 조부모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조부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 목사님은 벽난로로 가서 불 속에 있던 숯 한 조각을 꺼내 난로 옆에 따로 두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숯은 점점 식어갔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숯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금세 식어 버리지만, 다른 숯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밝게 타오른다는 것이다.

믿음도 이와 같다.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신자는 점점 영적으로 식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일 때 믿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새로워진다.

시편 132편은 분주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갈망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른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다. 그 열망은 개인적인 묵상 속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더욱 깊이 표현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장소가 마련되기까지 쉬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갈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시작일 것이다.

최승연 기자

하나님의 전지성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성경적 이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샘 존스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가?'(If God is all-knowing, how can man have free will?)를 4월 19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하나님이 우리가 하게 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철학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숙명론적인 역사관으로 이해한다. 모든 행동과 생각, 선택이 단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지가 곧 결정론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시간에 대한 잘못된 전제와 하나님에 대한 축소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예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 억지로 맞추려는 우리의 시도에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마치 시간선 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 미리 들여다보는 존재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보다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역사를 감시 카메라처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9-30절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예지(Foreknowledge), 예정(Predestination), 부르심(Calling), 칭의(Justification), 영화(Glorification)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다. 케리 고든 목사는 이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예정의 능력은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작동한다. 하나님의 예지는 예정의 능력에 종속돼 작동하지 않는다."

이 순서를 뒤집어 하나님의 아심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기계적인 운명으로 축소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된 통제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지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제시한다.

이 사실은 성경이 구속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경은 시간을 단순히 직선적으로 흐르는 연대기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시간은 구속이라는 중심을 기준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중심 축이다. 십자가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향해 뻗어 있는 구속 구조의 중심점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며 선언하신 말씀 역시 구속의 시간 구조를 보여준다: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옛 성도들은 장차 오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은 우주의 시작점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이는 구원과 도덕적 책임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시간이 기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시간의 가장 강력한 중심이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권면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다. 시간 속에 구속의 목적을 두면 시간은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의 목적을 잃어버린 시간은 기계적인 흐름이 되어 결국 영원을 지옥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의 목적은 단순히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데 있다.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철학자들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치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아시는 것처럼 표현된 장면들이 등장한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과연 그렇게 행하였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신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관계적으로 역사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다. 전지하심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시험하시고 드러내시며 관계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아시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식조차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성을 스스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자기 주권적이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주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속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속성을 완전하게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있는 공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성과 주권 역시 관계적이며 구속적이며 초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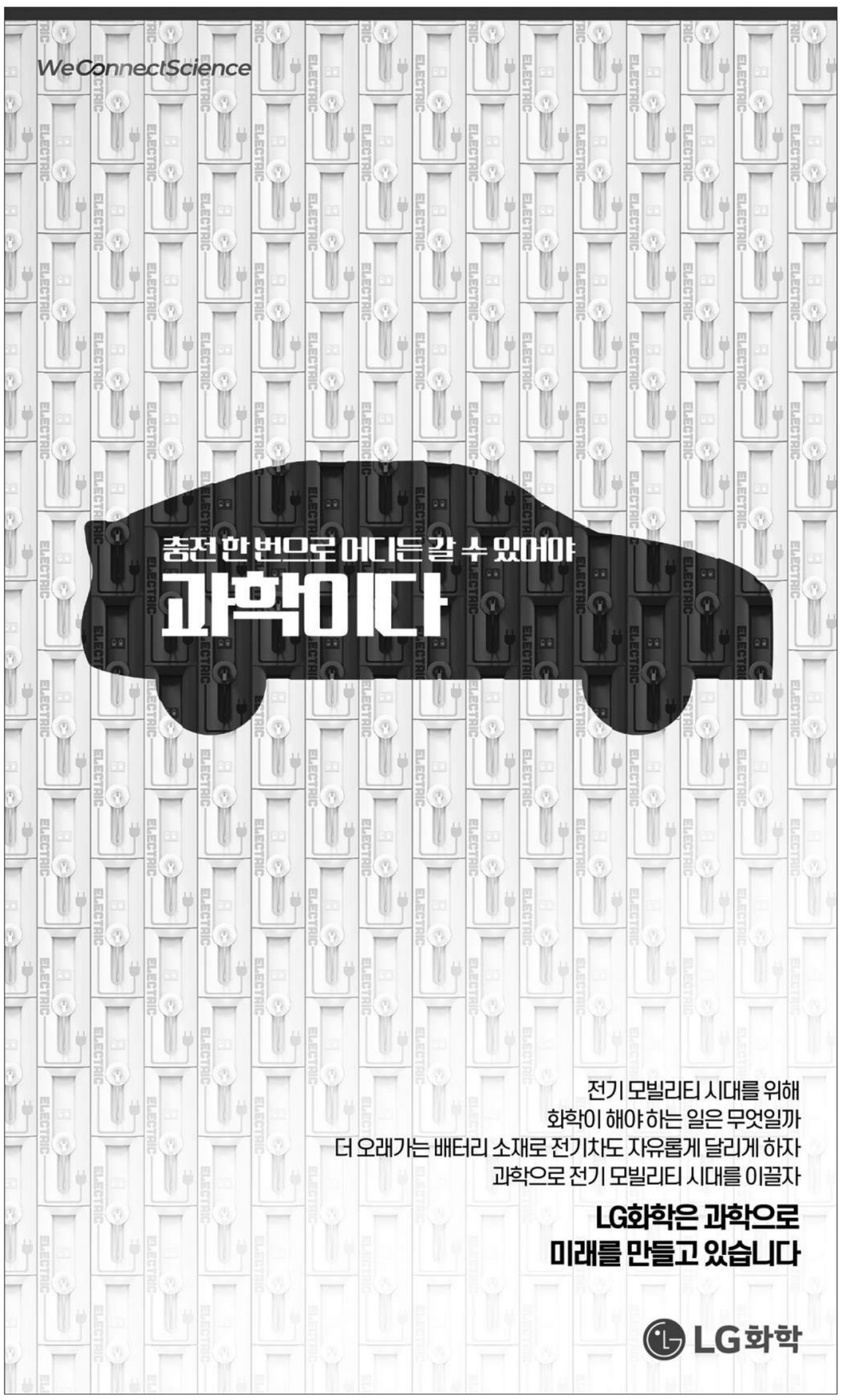
이러한 이해는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영혼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지켜 준다. 우리의 선택은 실제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미리 쓰여진 극본 속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 시간 속에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존재다. 그리고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끝을 아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을 제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차원으로 높인다. 하나님의 예지는 우리의 선택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원한 무게를 부여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실제적인 도덕적 선택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예지와 주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속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온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선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과 연결된 실제적인 선택이다.

최승연 기자



“목회(선교)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일은 없다”

배안호 선교사
영국 선교사



[서평]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필도, 두란노, 2005)



◈들어가기(서론):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도대체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목회자가 추구할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매력이다”. “목회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일은 없다”, “목회와 선교는 재미있고 행복하다”(이영환 목사) 이런 말은 일생 멋있게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일까? 턱도 없는 말인가? 목회와 선교는 가장 무거운 사명이요 ‘고된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무릎 목회’로 한국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정필도 목사님(1941-2022)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본서는 소명/연단/준비/기도/개척/성장/성숙/능력/가정/교회 등 10개 키워드를 1장씩 각 주제에 대한 정필도 목사의 생생한 목회관, 인생관, 세계관이 각 행간마다 녹아 있다. 이 책이 얼마나 ‘매력충만한 내용’인지 독자들의 시선을 확 잡아당긴다. 한마디로 한 목회자의 무르익은 영성과 인격이 흘러넘친다. 목차만 읽어도 너무나 통쾌하다. 서평자는 이 책의 목차 전부를 서평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출렁거린다.

1장. 부름 받은 자는 묶어 두신다… ‘소명’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주를 위해 살되 끝까지 주를 위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소명을 주신다. 무엇을 하다 가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까? 예수님은 꿈을 넓혀 주신다.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 약속 – ‘기도, 예배, 말씀’.

2장. 하나님께 만 답이 있다… ‘연단’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한 가지. 하나님께 만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풀어 가신다. 연단에는 뜻이 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께서 앞서 가시게 하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다. 사람을 설득하려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으라.

3장. 사랑한 만큼 쓰신다… ‘준비’

목회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사랑한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한 만큼 울 수 있다. 사랑한 만큼 양떼를 맡겨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크게 쓰신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에서 만난 축복. 사랑에 불타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라

4장.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기도’

신학교시절에 섬긴 개척교회, 졸업 후에 섬긴 신현교회, 그 걸음마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기초적 소양은 열심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꾸는 힘은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염치 불구하고 응답을 받을 때 까지 강청하라. 기도는 더 큰 믿음을 부른다.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 부흥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행복의 은혜를 임하게 한다.

5장. 첫 단추부터 순종으로… ‘개척’

개척 첫 단추의 이름은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 그럴 때 모든 시험조차 부흥의 징조가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달아올라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개척 목양원리1: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 개척 목양원리2: 사람과 배경을 의지하지 말라. 개척 목양원리3: 못된 교인보다 못된 목사가 문제다. 개척 목양원리4: 시험은 은혜의 통로다.

6장. 교만하면 멈춘다… ‘성장’

교회 성장의 주인은 성령, 성령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교만, 성장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의 걸음마다 남아있는 흔적의 은혜…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바라라.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닌 하나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의 무릎으로 세워진다. 성도의 믿음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

7장.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성숙’

큰 나무는 자랄수록 많은 것을 나눈다. 교회도 성장할수록 나눔의 쉼터가 커져야 한다. 기도와 나눔의 섬김이 이어져야 한다. 나눔이 있는 자리에 하늘생명의 잔치가 열린다. 기도의 품이 넓어져야 한다. 수를 헤아리지 말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8장. 목회 실력은 경건이다… ‘능력’

수영로교회 30년사의 주제는 ‘성령’. 쓰임 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구가 되라.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눈과 입을 깨끗한 의의 도구로 드리라.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 경건한 언어에 경건한 씨앗이 있다. 경건이 능력이요 실력이다. 경건의 양 날개, 말씀과 기도. 생각 한번 잘 하면 인생이 바뀐다. 경건은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린다.

9장. 가정이 웃으면 목회도 웃는다… ‘가정’

가정은 목회의 첫 출발점이자 도달점. 가정이 웃으면 목회도 웃고 가정이 안정되면 목회도 안정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는 스위트 홈의 향기를 위해 먼저 예수 향기를 집안 가득 풍겨야 하리.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의 행복지수, 준비된 만큼 높아진다. 나의 아내에게도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 사랑은 관심이다. 가정이 웃으면 목회도 웃는다. 가정 행복의 샘은 믿음! “부부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박신실 사모)

10장.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빛인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됨이 비전이고 하나 됨이 우리의 미래이다. 하나 된 교회에 주께서는 마침내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신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든든한 맏형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1장 부름 받은 자는 묶어 두신다: 일평생 실천한 ‘3가지 결단’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신다. 권력과 지력과 능력과 문벌면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심을 보여 주신다” (p. 33)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는 세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하루에 세 번씩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의 공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셋째,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씩은 꼭 읽는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결심을 통해 내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잘 견디고 믿음이 자라도록 붙들어 주셨다”. (p. 43)

제2장 하나님께 만 답이 있다: ‘목숨 걸고 기도하기는 주님의 응답만 기다린다는 뜻’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 주님이 한번 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평정된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면 죽을 정도로 사무치게 주님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핵심을 건드리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신다” (p. 59)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주님께 만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보여 주신다”. (p. 67, 정필도 목사님의 모든 글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이다)

제3장 사랑한 만큼 쓰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 즐겨 헌신하고 즐겨 충성하는 사람의 내적동기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p. 70)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랑 많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혼사랑의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중략)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 (p. 73 정 목사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

“축복이나 영광을 바라기 전에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주를 위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를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드리오리까?’라는, 사랑에 불타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소명을 받는 자이다” (p. 81)

제4장 눈물이 차야… ‘기도’: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답니다”

“나는 사실 내성적이고 겁 많은 사람이라 개척은커녕 목회자가 되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 차라리 평신도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 스스로 내 모습을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p. 94)

“목회는 지식이나 실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겸손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겸손이야 말로 진정한 목회 실력이요, 목회 능력인 것이다. (p. 95)

“목회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같이 동역하는 파트너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 하고, 나 또한 그 들로 인해 행복한 그런 경지가 바로 목회인 것이다. 나를 돕는 비서들이 담임목사로 인해 행복해 하고, 담임목사는 그 들로 인해 행복해하는 그런 목회, 그게 바로 참 목회인 것이다” (pp. 100, 101)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아이구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꽉 차기를 바라죠.”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답니다. 교인을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p.101, ‘성경말씀급의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몇 시간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p.107, 정 목사님은 조지 뮬러의 이 말을 금과옥조로…)

제5장 첫 단추부터 순종으로 … ‘개척’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순종이다. 주께서 뭐라 하시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p.133, 주님은 우리의 순종하려는 내적 동기를 훤히 알고 계신다)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을 풀기가 힘이 들지만 시험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물이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인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다. 사건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목회자는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태산처럼 커지던 문제가 어느 순간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p.145)

◈나가기(결론): ‘선교도 전도도 인생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아난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의 부흥에서 시작된다”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아난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 부흥에서 시작된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정필도 목사님의 어록들이다. 아!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인가?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다.

건강한 교회, 정통목회의 아름다운 목양정도의 모델을 정 목사님은 온몸으로 한국교회 앞에 보여주었다. 참으로 그렇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눈물로 세워진다. 교회만 무릎으로 세워질까? 당연히 선교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선교도 전도도 인생도 무릎으로 눈물로 세워진다.

서평자는 5,6년 전, 파라과이에서 부터 ‘14-14 원리(14-14 principle)’이란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40-50회 이상 설교를 즐겨 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원리’가 여기에(14-14원리)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 감격이 넘쳤다. 어떤 인생에게도 구원은 없다. 절대 절망 인생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이다. 가만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이름으로/내게 구하면/내가 시행하실 것”을 천명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14:14)

◈ 서평후기

서평자는 40년 전 총신 신대원에서 신학을 치열하게 공부할 때부터 정필도 목사님을 주목하였다. 개인적으로 정 목사님으로 부터 이런 저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총신대학교 부설 선교연구소를 사실상 책임 맡으며 계간지, ‘세계선교’를 발행할 때, 수영로교회 정 목사님은 선교연구소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 24여 년 전 탄자니아에서 사역할 때는 정 목사님은 매주 수영로교회 금요철야기도회서 전한 육성 설교 테이프들을 매월 소포로 보내주셨다. 정 목사님의 삶과 영성이 그대로 필자의 심령에 깊이 부어지는 축복을 누렸다.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두란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생명의 말씀사). 설교선집 10권 ‘기도로 눈물로 은혜로’(홍성사). 든든한 맏형님, 정 목사님. 코로나 시절 연명치료를 거부하며 82세 소천 하셨다. 지난 3월 19일 경남 창원공원묘원에서 ‘평생 강조한 ‘기도 중심 신앙’ 되새기는 4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오늘은 온종일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정 목사님이 그립다.



"그의 회심이야기"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허드슨 테일러(2)

허드슨 테일러를 알게 된 것은 신학교 시절, 선교학 공부를 하면서 부터입니다. 사역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신학교를 입학한 저는 선교학 교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해주실 때,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때마침 유학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중국인 친구, 하이펑이 있었고, 유학 직전 잠시 참여했던 중국 단기선교에서 받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해도 저는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황이 중국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은 닫으시고, 지역 교회 목회로 인도해 주셨고, 결국 감사한인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저의 은사와 재능과 상황에 맞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과 삶, 사역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의 회심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회심사건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적 인사이트와 감동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0대시절 방황을 하였습니다. 신앙을 부정하고, 인생의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은 오늘날과 달리, 자기 할 일을 찾는 나이였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49년 그가 17세였을 때, 허드슨은 집에서 우연히 전도지 한 장을 읽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곧, 자신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즉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셨고, 주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 아멜리아와 허드슨의 동생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친척집에 방문 중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시간,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방문을 잠그고, 아들이 주님을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도가 응답 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방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허드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허드슨은 어머니께 자신의 회심한 사건을 간증하였고, 어머니 아멜리아는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기도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령께서 확신과 감동을 주실 때까지 강청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사생결단 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결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을 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엄밀히 말해 기도가 자녀의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의 회심,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 사생결단 기도, 이 같은 키워드를 붙잡고 신앙과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최우선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말세는 하나님말씀을 가볍고 경홀히 여겨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딤후4:3-4) 영적 위기의 3가지 징조, 1)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2) "귀가 가려워서" 원어적으로 '귀를 긁어줄 것을 찾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자기중심성의 선택적 청취입니다. 3)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씀의 권위보다 개인의 취향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 점진적인 이탈이 일어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는 말씀대로 건강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아닌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원인은 '자기중심성'의 죄 때문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 하신 영일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How가 아니라 What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도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간교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90% 이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10%의 잘못으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뱀은 하와와 절친이었지만 간교했고 유혹의 말은 그럴 듯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죽을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듣고 싶었던 말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분별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개인의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면 100% 잘못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거짓이 없으시고 식언치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23:1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삼상15:29)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기 좋은 말만 전하는 설교와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는 신앙문화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적 감정과 경험을 우선시하고, 사람들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최고의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딤후4:1-2)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최우선의 일을 통해 선교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사명까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랩톱이 아니라 타자기로 쓰듯이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토스카나에서의 여름〉 영화에서 한 장면이 마음에 남습니다. 시골 이태리를 배경으로 Harvey Keitel과 Joshua Jackson 주연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어떤 계기였는지 펜을 꺾고, 잠적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목말랐던 한 유명한 출판사에서 한 직원을 파견해서 작가를 설득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출판사 직원도 평소 유명한 작가(Harvey Keitel 역)의 글에 반하여 존경하던 차에 직업의식 반, 호기심 반으로 수소문 끝에 작가를 찾아가 설득하고 글을 써 달라 조르지만, 번번히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 랩톱 컴퓨터로 작업을 하던 직원에게 작가가 하는 말이 "컴퓨터로 글을 쓰지 말고 타자기로 쓰라" 였습니다. 컴퓨터로 쓰면 글을 고치기도 쉬운데 왜 타자기로 써야 하느냐고 묻는 직원에게 "타자기로 써야 단어 선택에 더 신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40년 한주도 빠짐 없이 썼던 설교원고들을 생각해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며 썼는지 되돌아 보게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국어사전을 옆에 두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정확한 메시지 전달에 신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뒤돌아 보면, 원고를 그냥 읽는 설교가 아니라, 눈을 원고에

서 떼고 설교하기에 때론 틀린 단어들이 툭툭 튀어 나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는 타자기로 페이퍼를 쓰다가, 신학원부터는 개인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으니, 저의 설교 원고는 처음부터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쌓여 있는 설교원고들을 뒤지면 얼마나 많은 오타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신중하게 메시지 전달을 위해 타자기 치듯이 적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랩톱 컴퓨터에 쓰듯 하지 말고, 지우기 힘든 타자기로 쓰듯 말을 한다면 마음에 상처로 남는, 대못 박는 말이 아닌, 생명력 있는 말, 가슴에 감동으로 남는 귀한 말들로 서로 격려하고 살려 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극을 넘어 상생으로: 파국의 시대, 공존의 문명을 묻다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세상에는 오래된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상대를 밀어내며 나만 살아남으려는 길, 상극(相剋)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살리며 함께 살아가려는 길, 상생(相生)이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위기는 결국 이 두 가치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상극은 갈등과 배제를 전제로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경쟁은 극대화되며, 타자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된다. 자국의 이익을 절대화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는 이러한 상극의 전형적 얼굴이다. 반면 상생은 공존과 연대를 토대로 한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제도와 문화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상생의 본질이다.

문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긴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보았고,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붕괴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통찰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하나의 진실을 향한다. 상극은 자기 파괴적이라는 사실이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다시 상극의 기울기로 미끄러지고 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 동유럽의 장기화된 전쟁, 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긴장은 모두 힘의 균형을 둘러싼 불신에서 비롯된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각국은 군비를 확장하고, 상대의 방어를 위협으로 해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민족주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되면서, 국제 규범과 협력의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전쟁은 확산되고, 경제는 불안정해지며,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극의 구조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전쟁은 에너지, 식량, 금융의 위기로 확산되며 세계 전체를 흔든다. 상극은 이제 국경 안에 머물지 않고, 인류 공동의 삶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상생은 더 이상 이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생존 전략이다. 무엇보다 배타적 안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협력적 안보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상대를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전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경제적 상호의존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 간 연결이 깊어질수록 전쟁의 비용은 커지고 평화의 유인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윤리적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전쟁은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이다. 교육과 종교, 문화는 다시 인간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아르테미스2호 우주인 홍일점 여성 우주인의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우주를 유영하는 구명보트와 같았다." 라고 했다. 그 의미는 지구촌 모든 인류는 지구를 사랑하고 공존을 위해 상생해야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상생만이 우주에서 지구가 살아남는 길이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고요히 임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모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 시차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제 영혼은 고요한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아이티 선교팀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부활절 어린이 잔치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모국에서 처음 전한 말씀은 "하늘에서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성령님은 왜 비둘기처럼 임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비둘기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때,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얼마 후, 비둘기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창 8:11). 비둘기는 새 잎사귀를 통해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죽음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의 숨결이 다시 땅 위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부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삶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입니다. 마른 땅에 돋아나는 새 잎처럼, 성령님은 메마른 삶 속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둘째, 비둘기는 진심과 전심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의 눈은 비둘기의 눈으로 묘사됩니다(아 1:15, 4:1, 5:12). 비둘기는 주변의 여러 사물을 산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대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눈은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한 번 사랑하면 평생 그 사랑을 지킨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마음은 진심(眞心)입니다. 가식이 없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한 전심(全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님은 《온전론》에서 "사람에게는 진심(眞心), 하나님께는 전심(全心)인 목회"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성령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셋째,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비둘기는 싸우기를 싫어하며, 다투지 않고,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 조용한 날갯짓 속에 하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금슬지락(琴瑟之樂)의 모범입니다. 금슬지락(琴瑟之樂)은 거문고와 비파가 함께 어울려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두 악기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며 조화를 이루듯, 사랑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받아주고, 보완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비둘기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입니다(요 14:16).

넷째, 비둘기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때로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무너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울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울부짖을 때, 그의 기도는 비둘기의 울음처럼 하늘에 닿았습니다(사 38:14).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다섯째, 비둘기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입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드린 제물입니다(눅 2:24). 비둘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서진 사람, 연약한 사람, 우울한 사람,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롬 8:15-16).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고전 12:3).

날마다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혹시 지금, 홍수 이후의 땅처럼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고, 다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보내십니다. 그 비둘기의 입에 "새 잎사귀"가 물려 있습니다. 작지만 살아 있는 생명입니다. 새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739-8119
광고문의 010-2700-3297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社 說

'교회해산법', 교회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계가 사실상 '종교법인해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 인사들과 법안 발의 의원들 간의 잇따른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이하 종반위) 박한수·이태희 목사, 지영준 변호사 등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최혁진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염태영·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반위 소속 인사들은 한국교회가 이 개정안을 왜 '종교법인해산법' 더 나아가 '교회 해산법'이란 별칭으로 부르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조직적·반복적 정치활동 개입'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교단과 연합기관 등이 통상적으로 하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얼마든지 규제 범주에 들 수 있다.

모호한 기준에 비해 이를 처벌하는 주무관청의 권한이 과도하게 큰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영장 없이 교회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행정기관이 법인 해산을 단독 결정하도록 한 것 등은 영장주의 위반과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게 교계의 판단이다.

종반위에 앞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혁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내용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진 의원은 "개정안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법인 사단인 일반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 활동을 일체 제약하지 않으며, 이를 '종교해산법'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교회법학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게 교계의 단순한 오해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법학회는 이 개정안이 사이비 종교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행정관청이 정통 종교단체의 내부 영역까지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화해 행정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일반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식의 매번 똑같은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종교법인을 규제하고 해산까지 하겠다면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하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궤변에 가깝다.

특히 해산된 종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성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재산은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피해 신도들의 보상에 우선 사용되는 것인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종교재산을 귀속하겠다는 건지 법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한은 총재 후보자의 '외화 자산' 논란

원화 환율이 '초비상'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1,500원대를 초과하며 우리 경제 전반에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환율 급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범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외환보유고·스와프 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반짝 효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원화 가치 약세로 수출이 잘되어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가 달러 공급을 늘려 원화 가치를 높였으나,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환율이 1,700원 선까지 치솟을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통화 정책, 금융 안정, 외환 관리 등 위급한 상황을 타개할 중요한 위치가 한국은행 총재 자리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한 신현송 씨가 외환위기 상황을 타개할 적합한 인사인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중심에 그가 신고한 재산 82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라는 데 있다.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고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IMF 상주 연구자,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맡은 자타공인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경력과 식견을 갖추었어도 환율이 오를수록 본인 자산이 늘어나는 이가 환율 방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한은 총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외환 관리 총 책임자가 외환이 오르면 재산이 불어나는 구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결국, 이런 문제로 지난 15일 국회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본인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 진정성이 국민들 마음에 어디까지 와닿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아르헨티나 시력 지원 선교 'Ver para Creer', 의료 사각지대 안과 진료와 복음 전파 확대

안과 검진 어려운 지역 방문해
무료 시력 검사와 안경 지원…
지역 교회 협력 선교 활동 진행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르헨티나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기본적인 시력 검사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력 지원과 복음 전도를 함께 진행하는 사역 'Ver para Creer(보면 믿게 된다)'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4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역을 시작한 다니엘 도밍게스는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안과 진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차 시력 관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방식과 달리, 'Ver para Creer' 팀은 직접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다. 현장에서 시력 검사를 실시하고 처방을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 안경도 함께 제공한다.

시력 검사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거리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도밍게스는 기본적인 시력 검사 비용이 5만~8만 페소 수준이며 여기에 이동과 숙박, 식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시력 지원 선교 결합… 지역 교회 협력 통해 복음 전파

'Ver para Creer' 사역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복음 전도 활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밍게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후 지속적인 신앙 상담과 돌봄 역할을 이어간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 지원과 복음 전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동 진료 형태의 클리닉은 학교와 교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에 설치된다. 현장에서 시력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즉시 안경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동시에 지역 교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역팀은 교정 시설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시력 검사와 안경을 제공하며 성경과 신앙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신앙적 돌봄과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밍게스는 이러한 사역이 선교적 관점에서도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참여하며 여러 차례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전역 확대 계획… 의료 사각지대 지속 지원 목표

'Ver para Creer' 사역은 약 2010년 시작됐으며 현재는 전국적인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역팀은 8~9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밍게스는 "아르헨티나 각 주마다 사역팀이 세워지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활동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취약 지역인 푸에르테 아파체(Fuerte Apache)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역은 시력 지원과 복음 전도를 결합한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와 신앙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Ver para Creer의 프로그램은 약 2010년경 시작됐으며 현재는 아르헨티나 전국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Photo: Ver para Creer

CDI는 'Ver para Creer'가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영국복음연맹, 청년층 신앙 탐색 돕는 디지털 플랫폼 'Ethos' 출시

정체성과 삶의 의미
질문 돕는 온라인 도구…
젊은 세대 영적 관심 증가 반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UK)이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청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Ethos'를 출시했다고 4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플랫폼은 신앙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탐색하려는 젊은 세대를 돕기 위해 개발됐으며,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영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을 반영해 기획됐다.

Ethos는 무료로 제공되는 퀴즈 기반 온라인 도구로, 이용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믿음에 대한 질문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한 간단한 영적 실천 방법을 제안해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플랫폼은 영국복음연맹이 진행 중인 'Being Huma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Being Human 프로젝트는 인간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질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층 영적 관심 증가… 신앙 탐색 위한 새로운 접근 시도

영국복음연맹 영국 디렉터이자 Being Human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인 피터 리나스는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영적 관심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전 세대와 비교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나스는 교회 방문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 Ethos가 신앙 탐색의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앙을 접하기 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thos 플랫폼은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퀴즈로 시작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받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실천 방법을 제안받는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장기적인 참여 의무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리나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젊은 세대의 영적 관심 증가가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Being Human 프로젝트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Ethos는 영적 탐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4주 과정 통해 신앙 이해 확장… 실천 중심 접근 강조

Being Human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인 캐서린 브라운은 Ethos가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퀴즈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통찰을 제공받게 된다.

플랫폼은 약 4주 동안 단계적으로 영적 실천을 경험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일상 속에서 적용 가능한 간단한 실천을 통해 신앙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리나스는 Ethos의 목적이 자기계발을 넘어 신앙 여정을 이어가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Ethos가 지역 교회가 청년층과 연결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공유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돼 개인이 친구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Being Human 프로젝트 기반… 신앙 탐색 위한 디지털 접근 확대

Ethos는 Being Human 프로젝트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정체성과 관계, 현실, 목적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탐구해 왔다. 이전에는 도서와 팟캐스트를 통해 문화적 질문과 신학적 주제를 다뤘다.

Ethos는 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해 이용자가 자신의 신념과 삶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이용자는 개인 성향에 대한 결과와 함께 성경적 지혜에 기반한 실천 방법을 제안받게 된다.

이 플랫폼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작진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애터미,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위해 20억 원 기부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포함
유가족 지원…
장기적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애터미 주식회사(회장 박한길)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과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총 2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을 포함해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애터미는 최근 애터미 오롯 석세스 아카데미 행사에서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가족 위로금 지원을 비롯해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지원, 생활비 및 치료비 등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금 형태의 지원 모델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는 4월 12일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도 포함된다. 양 기관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유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박한길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소방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소방가족희망나눔 측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애터미는 재난 피해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기부했으며 최근 3년 평균 기부금 비중은 매출 대비 1.9%로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애터미는 앞으로도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과 재난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 종 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MGBC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 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신 은혜의 기록

신간 ‘상처가 아니라 흔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며 발견한 신앙의 의미를 담은 책 『상처가 아니라 흔적입니다』가 출간됐다. 최원석 목사는 대형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경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기록했다.

저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역하며 다섯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를 겪었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위중한 상태로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된 그는 여덟 차례의 대수술을 견디며 긴 회복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책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경험한 신앙의 변화와 내면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담아낸 기록이다.

병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저자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역과 책임 속에서 쉼 없이 달려오던 삶이 멈추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삶을 이끌어 가려 했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사고를 극복한 경험담을 넘어, 고난 속에서 발견한 신앙의 의미를 조명한다. 저자는 몸에 남은 흉터를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사고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건강을 누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만들었으며,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체험되는 관계임을 강조하게 했다.

또한 책은 고난의 시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지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큰 힘이 되었음을 밝히며,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상처가 아니라 흔적입니다』는 고난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조명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며, 삶의 예상치 못한 순간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질병과 사고, 실패와 상실 등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동시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최승연 기자

신간

성령과 기질



인간의 타고난 성향과 신앙의 성숙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성령과 기질』이 출간됐다. 저자 팀 라헤이는 오랜 목회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질이 삶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와 성숙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 책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질’을 주목한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전통적인 4기질 유형을 통해 각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 기질 속에 존재하는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기질이 타고난 특성이기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숙한 방향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성경 속 인물들의 변화를 중요한 사례로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담대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성향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성격 교정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뤄지는 내적 성숙의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성령과 기질』은 현대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도 주목한다. 분노, 두려움, 우울, 불안, 죄책감과 같은 감정의 문제를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내면의 기질과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저자는 오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임을 지적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인간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성도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성령의 열매로 알려진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의 가치가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로의 기질과 한계를 이해하는 과정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지지와 격려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성령과 기질』은 자기 이해와 영적 성숙을 함께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신앙과 성품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최승연 기자

최근 10년 과학도서 판매 1위 ‘코스모스’… 스테디셀러 영향력 확인

교보문고 분석 결과 발표… ‘이기적 유전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 상위권



최근 10년간 과학도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로 집계됐다. 교보문고는 4월 ‘과학의 달’과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최근 10년간 과학도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도서 판매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은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였다. 이 도서는 2006년 번역 출간된 이후 꾸준한 판매를 이어오며 과학도서 분야에서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코스모스’는 천체물리학자인 저자가 우주의 탄생과 구조를 설명한 작품으로, 대중 과학서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판매량 2위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차지했으며, 3위는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올리버 색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며 꾸준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저자들의 과학도서도 이번 분석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김상욱 경희대 교수의 ‘떨림과 울림’은 6위를 기록했으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역시 9위에 오르며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국내 과학도서가 독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선택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교보문고는 이날 과학도서 베스트셀러 저자 순위도 함께 공개했다.

과학도서 저자 순위에서는 칼 세이건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리처드 도킨스, 룰루 밀러, 김상욱, 카를로 로벨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순위는 최근 10년간 과학도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된 것으로, 장기간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온 저자들의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다.

교보문고는 과학의 달을 맞아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과학책 리뷰왕’ 이벤트는 독자들의 실제 리뷰와 추천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과학도서를 소개하고 독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때 증명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확신과 의심이 함께 있습니다. 약속은 붙들고 있지만, 현실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 선택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신앙의 실력’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면 나의 수준이 드러나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에 선택의 자리로 부름 받았고, 그 선택 앞에서 고민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고 싶지만, 현실은 여전히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삶에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성은 ‘나오미, 다시 이름을 찾다’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변화 없이 머물지 않도록, 타인의 아픔에 눈멀고 귀먹지 않도록,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데서 벗어나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생산적인 고난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언어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사회성이나 언어에 다시 묶어 두려는 것이, 어쩌면 고난에 대한 성찰을 회피하려는 건 아닐까? 고난의 본질적 경험 중 하나는 바로 그 비사회성, 곧 유효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지던 관계들의 해체다. 고난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점점 더 고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 비극은 관계가 차례로 해체되고 개개인이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 이러한 과정을 잘 묘사한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위대한 파라오에 맞선 봉기 속에서 살고, 억압받는 자들과 차별받는 자들 옆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파라오에 동의하기란 쉽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십자가의 형상들을 못 본 척하기란 간단하다. 물론 더 이상 침울한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는 신학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비판받아야하는 까닭은 그것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교와 결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는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도로테 죌레 ‘고난’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분으로 마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기사 속에는 이미 십자가의 구원과 재창조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그분의 형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며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규삼 ‘설교를 읽다, 예수를 읽다’



날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73)

제5부 기독교 박해의 역사

사도시대 교회는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역사이지만 참으로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사도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으로서는 참아내기 어려운 지경의 각종 박해를 받았으며 때로는 십자가에서, 때로는 단두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속절없이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진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기어 삼키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써 박해자들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박해는 기독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던 로마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어졌다. 우리는 사도시대의 기독교 박해를 고찰하면서 그 박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그 박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학적으로 정립한다.

제1장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사도시대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는 형편이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은 이스라엘 본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에 확산되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

초기 기독교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외세의 침략과 정복에 의하여 국가 없는 조국을 마음속에 지키고 그리며 살았다. 그런 그들에게는 조상대대로 전승되어 온 메시아 사상에 의한 시오니즘적 대망이 있었고 그 대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가난한 일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를 자처한 것도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 점점 오만방자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과의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대인들은 심히 분노하였고 그를 로마 법정에 세워 처단해 버렸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잔영(殘靈)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유대교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미 국가의 멸망으로 민족 전체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고 본토에 남은 자마저 교리적 문제로 사분오열되었으며 밀려들어오는 헬레니즘, 그레코로마니즘 등등의 이방 문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시오니즘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가볍게 보았던 신흥 종파가 유대인 사회 전체를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은 본토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등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 전체에 만연되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는 본토 유대인 사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조국을 떠나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계승되어 온 시오니즘 하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적 삶을 살았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드디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희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 들은 소식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실보다 많이 오류되어 있거나 무시되어 있어서 신경 쓸 것 없는 가벼운 이야기였고 어떤 때는 너무 과장되어 놀라운 소식일 때도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처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실망스러운 이야기였다.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내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 이에 헤롯이 놀라 당시에 태어난 사내아이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기대감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실망하였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구세주가 드디어 왔는가 하는 점에서 놀라움과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구세주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의문과 실망을 하였다. 그들은 구세주가 헤롯 왕조의 후예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매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상식대로라면 구세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 다윗 가문 중에 명망 있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 후로 30여 년이 흐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음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를 비롯하여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들은 크게 놀랐고 흥분하였으며 메시아에 의한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열망하게 되었다.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는 대목에서 그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새로운 시오니즘에 대한 정열이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비록 그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함께 전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믿을 수 없는 낭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계속하여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적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그들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주는 자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히 대조적이었다. 민족적 시오니즘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간 허약하고 나약한 가난뱅이였으며 혹세무민의 위선자이며 사기꾼이었고 매국노였다. 반면에 평화주의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는 순간까지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메시아였으며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한 왕 중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였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해주는 자들의 성향과 전해받는 자들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전달하는 자나 전달받는 자가 모두 민족적 시오니즘자들인 경우에 그들은 유대교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후예들을 증오하고 적대하였다. 반면에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가 다 함께 평화주의자일 경우에 그들은 새로운 평화주의적 시오니즘을 형성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전달된 것이다. 성경은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사건에 동참했다-행 2:5)고 증거한다.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령 임재 사건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민족적 시오니즘에서 탈피하여 평화주의적 시오니즘으로 돌아섰고 그리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수십 세기 동안 계승되어진 시오니즘 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소식을 낭설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반역자로 몰아 증오하고 적대하였다.

민족적 개념에 의한 대립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야훼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으로 전파되는 것에 분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오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뿐이었다. 수천 년간 조상대대로 계승되어 온 선민사상과 자신들만의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온 그들에게 세계적인 하나님을 주장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매국노였고 역적이었다. 특히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조국과 민족의 멸망과 비극에 대한 역사관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조국과 민족의 비극적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유대교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소급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인들에게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밝은 지도자 계열에서는 단호하게 나타났다. 저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적 정치체제를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주의적 정치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특히 다윗이 밧세바를 왕비로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한 것과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힘으로써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단되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하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국가와 민족이 멸망했다고 주장하였다.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주장에 크게 진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가를 부국강병의 국가로 발전시킨 위대한 성군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였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였다. 한편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적 패망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한 이단적 유대교 분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이단 분파로 인하여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있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이스라엘라이프

출애굽 시대의 성경지리와 역사 (6)

라암셋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역을 통해 국고성 비돔과 함께 지어진 성읍으로 고센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상이집트의 테베가 수도였는데 하이집트 지역에 시나이 반도로 연결되는 요충지인 이곳에 큰 도시를 세운 것은 전략적인 요새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유적 중에 아몬 대신전, 람세스의 석상, 부러진 오벨리스크 등이 남아있는데 유적의 규모로 당시 이곳의 규모가 대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왕성한 정복욕, 건축, 재산에 걸맞게 많은 처첩을 두어 79명의 아들과 59명의 딸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출애굽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 히타이트(Hittites)

출애굽 시기 BC 15~13세기 당시 이집트 주변 국가들 중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과 에서의 결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헷(Hittites)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았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후에는 그들 가족들의 이웃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만든 민족으로 잘 알려진 히타이트(Hittites) 민족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성경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2,000년경 현재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이동하여 몇 개의 도시국가들을 만들었고 BC 19세기 쿠사라의 왕 아니타시가 도시국가들을 병합하며 세력을 확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BC 17세기 후반에는 하투실리스가 시리아 지역까지 군대를 진격시켜 통일 왕국을 만들었고 그 수도를 하투샤(현 터키의 보가즈쾨이)에 두었습니다.

그를 이은 무르실리스 1세는 그 여세를 몰아 기원전 1595년 최강국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철기를 개발한 민족으로 앞선 기술의 무기를 통해 바빌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세력 확장을 펼친 히타이트와 북쪽으로 세력 확장을 펼친 이집트가 맞서 싸우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은 화친을 하고 그 증표로 이집트의 왕과 히타이트의 왕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계속〉

길에서 배우는 세계와 여행 이야기 제공



라암셋 유적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49)

신앙의 공공성,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서론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통로' 삼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며,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의 정거장'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치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숨을 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서로를 살리는 신앙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영혼의 엔진을 교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

1. 은혜의 기억이 낳는 하나 됨의 열매 (빌 2:1-2)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 됨을 요청하기 전,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네 가지 은혜를 소환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피워내야 할 열매가 바로 '하나 됨'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선의 일치): 인간은 저마다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의 일치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의 일치'는 가능합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각자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지점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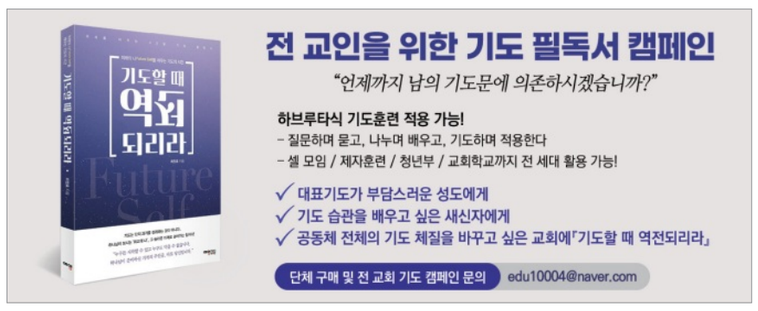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차별적 사랑):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조건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34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적 사랑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으라 (영적 리듬의 조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 내 소리를 조절하는 겸손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화음은 깨집니다. 내가 조금 낮아질 때 공동체는 비로소 천국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2. 자기중심성이라는 우상을 파쇄하는 겸손 (빌 2:3)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이라는 암세포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 질병입니다. 바울은 이 뿌리 깊은 문제를 단 두 단어, '다툼'과 '허영'으로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다툼과 허영의 실체: 여기서 '다툼'은 단순히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이기적인 야망(Selfish Ambition)'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향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다툼의 본질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신앙적 상상력: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남의 단점을 찾아 나를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평가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형제를 보십시오.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세워가야 할 존재로 보게 됩니다.

결국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를 낮추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상대를 높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도 물러설 수 있는 힘,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우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 엔진의 교체,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빌 2:5)

바울은 이제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 즉 '영적 엔진'을 교체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은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하는 봉사는 결국 자기 의가 되거나 금세 지쳐 원망으로 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 놀이를 멈추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라는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겸손이라는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이식받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짜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식됩니다. 내 본성이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4. 낮아짐의 사다리와 성화의 길 (빌 2:6-18)

6절부터 11절은 이른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여정은 우리가 왜 낮아짐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신학적 선언을 단순한 교리로 끝내지 않고, 12절 이후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기 비움 (Kenosis, 6-7절):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자기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죽기까지의 순종 (8절): 주님은 사람이 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와 저주의 정점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하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 어떤 상처도 치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반전 (9-11절):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공동체는 병들지만,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망을 버리십시오 (14절): 원망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원망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무거워지고, 감사가 사라질수록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시비를 버리십시오 (14절): 시비는 내 판단을 절대화하여 끊임없이 논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시비는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독소들을 제거하고 묵묵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15절).

결국 낮아짐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며, 성화는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이며, 그 교회 된 우리가 서로를 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결국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살리는 신앙의 비밀을 삶으로 증명해 내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허영과 고집을 내려놓고 형제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눈을 열어 주시며,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시비를 제하시고 사랑의 말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BIBLE PORTAL 오늘의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로마서 5장 19절(개역한글)

교계·선교·NGO 동향

교계

2026년 4월 21일(화) 주요 교계 행사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및 장로교단

시간	행사/일정명	장소	주관/주최
09:00	**제204회 평남노회 정기노회**	큰빛교회 (남양주)	15:00 목사 안수식 포함
09:00 – 17:00	**인천노회 정기노회**	제삼교회	헌의 및 보고 접수
09:00 – 22:00	**대전서노회 정기노회**	대전 가장제일교회	개회예배 및 회무 처리
13:00 – 14:00	**제200회 함해 정기노회**	부산제일교회	정기 사무 처리
당일	**총회본부 주간 행정 업무**	총회본부	노회 보고 접수 및 지원

2.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시간	행사/일정명	장소	주관/주최
10:30 – 14:30	**현장 목회자 및 교사 교육**	신길교회 (서울)	담임목사, 교사 대상
당일 (개강)	**제118-2차 전도사 계속 교육**	헬몬수양관	4.21(화) ~ 4.23(목)
당일	**교육원장 및 주요 기관장 이취임식**	교단 지정 장소	조영래 목사(이임), 임채영 목사(취임)

4월 21일, 정기 노회와 목회자 교육 일정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예장통합 총회 및 산하 노회들은 21일 당일 행정 사무와 목사 안수를 위한 회무를 처리한다. 제204회 평남노회는 오전 9시 남양주 큰빛교회에서 정기노회를 개회하며, 오후 3시에는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제200회를 맞는 함해 정기노회는 오후 1시 부산제일교회에서 소집되어 사무 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대전 가장제일교회와 제삼교회에서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각 노회별 정기노회가 열려 개회 예배와 함께 각종 헌의안 및 교회 현황 보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총회본부에서는 전국 노회 보고를 접수하는 행정 지원 업무가 수행될 계획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21일 교육과 기관장 이취임식에 집중한다. 서울 신길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 목회자 및 교사 교육이 열려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도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제118-2차 계속 교육은 21일 헬몬수양관에서 개강하여 2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아울러 교단 교육원장 및 주요 기관장 이취임식이 당일 개최되어, 조영래 목사가 이임하고 임채영 목사가 신임 교육원장 등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선교

2026년 4월 21일(화) 주요 선교 단체 사역 일정표

시간	단체/기구	주요 일정 및 사역 내용	장소/방식
07:00 ~ 13:30	**KMA (북미주 개혁교회**	시애틀 세션: 소그룹 나눔, 목회 및 선교 현장 기도회	미국 시애틀 현장
10:30 ~	**에클레시아선교회**	선한 청지기 재정 학교 (성경적 재정 관리 훈련)	선교회 예배실 /Zoom
13:00 ~ 16:00	**예장통합 총회**	[훈련] 제75기 총회 파송 선교사 선교 훈련 (현장 탐방)	더세움교회
19:00 ~	**부산 수영로교회**	'땅·이·선' (땅끝, 이웃, 이주민) 정기 선교 기도회	수영로교회 평강홀
종일	**군선교사회**	2026 군선교 전략캠프 개막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예배)	제주도 일대
종일	**예장개혁 총회**	2026 세계선교대회 D-1 최종 준비 (엑스포 부스 설치 등)	서울 예원교회
종일	**KWMC / KWMF**	5월 세계선교대회 실무 준비 (호텔 배정, 항공권 확인)	각 본부 및 뉴욕 현장
종일	**GBT 성경번역선교회**	제4기 OBS 워크숍 후속 행정 및 25일 세션 준비	선교회 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 양주 더세움교회에서 제75기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탐방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총회 군선교사회는 2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26 군선교 전략캠프'를 시작한다. 첫날인 21일에는 전국 사역자 등록과 오리엔테이션,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분과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사역도 이어진다. 에클레시아선교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선한 청지기 재정 학교'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여 성경적 재정 관리법을 강의한다. 북미주에서는 KMA(북미주 개혁교회) 시애틀 세션이 오전 7시부터 열려 목회 및 선교 현장의 과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는 부산 수영로교회가 저녁 7시 평강홀에서 외국인 목회자와 이주민 사역자를 위한 '땅·이·선' 선교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2일 개막하는 '2026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는 행사 하루 전인 21일, 서울 예원교회에 선교 엑스포 부스를 설치하고 해외 입국 선교사 영접 데스크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와 KWMF 3040 선교사 대회 실무팀은 각각 호텔 배정 물류 점검과 참석자 항공권 예매 확인 등 최종 행정 업무를 21일 중 집중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GBT 성경번역선교회 역시 지난 18일 진행된 구어 성경(OBS) 워크숍의 후속 과제를 관리하며 오는 25일 예정된 최종 세션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장지동 기자

NGO

2026년 4월 21일(화) 기독교 NGO 주요 일정

단체명	구분	세부 일정 및 활동 내용
사단법인 굿피플	행정/모집	· 2026 자립준비청년 성장지원사업 '굿프렌즈' 서류 접수 마감 (23:59) · 접수 마감 직후 서류 심사 착수 (4/21~4/22)
하트-하트 재단	행정/모집	·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 참가 단체 접수 마감 (17:00)
굿네이버 (영남권역)	모집	· 대학생 봉사단(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모집 신청 마감
희망친구 기아대책	캠페인/행정	· 2026 KRX 부산 지역사회 공모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 진행 중
월드비전	사업운영	· 2026 학생 심리·정서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 업무 수행 ·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 2'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팀앤팀	캠페인	· 아프리카 식수 지원 '2026 워터런' 비대면 기부 러닝 인증 및 참여
사단법인 프렌드림	봉사모집	· 2026 하계 캄보디아·몽골 개인 건축 및 교육 봉사자 신청 접수
한국밀알 선교단	정기활동	· 정기 화요모임 (19:30, 예배 및 경배와 찬양 개최)
한국오픈 도어선교회	정기활동	· 온라인 화요기도모임 (19:30~21:00, Zoom을 통한 박해받는 교회 지원)
다일공동체	현장봉사	·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 급식 서비스 (09:00~14:00, 청량리)

사단법인 굿피플은 이날 2026년 자립준비청년 성장지원사업인 '굿프렌즈'의 참여자 모집을 종료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심리 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당일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22일까지 이틀간 서류 심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는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의 참가 단체 모집 역시 이날 오후 5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축제는 발달장애인 연주 단체들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는 장으로, 이메일을 통한 최종 접수가 당일 종료된다.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의 대학생 봉사단 모집도 이날 신청이 종료된다.

현장 캠페인과 정기 활동도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팀앤팀은 아프리카 식수 지원을 위한 '2026 워터런' 비대면 인증 캠페인을 지속하며, 다일공동체는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급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요일을 맞아 한국밀알선교단과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각각 오후 7시 30분에 정기 예배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온라인 기도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 사업의 행정 절차를 수행하며, 기아대책은 부산 지역사회 공모사업 접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최승연 기자

장민호·김용빈·안주희, MBC 〈봄날의 기적〉 진행

희귀난치병·장애 아동 돕기 나선다

가수 장민호와 김용빈, 안주희 아나운서가 희귀난치병 환아와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특집 방송 진행자로 나섰다. 밀알복지재단과 MBC가 공동 기획한 〈봄날의 기적〉은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시청자의 후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봄날의 기적〉은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며, 오후 6시 5분 MBC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장민호와 김용빈, 안주희 아나운서가 MC를 맡아 희귀난치병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제작진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조명하고, 시청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고 밝혔다.

〈봄날의 기적〉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나눔 프로그램으로, 희귀난치병 아동 치료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연을 소개해왔다.

◈MC 참여 통해 전하는 응원 메시지…나눔 참여 독려

녹화 현장에서 MC들은 희귀난치병 아동과 가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민호는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이 꿈과 건강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김용빈 역시 과거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밝히며, 긴 치료 과정 속에서 지쳐가는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주희 아나운서는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방송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희귀난치병 아동 치료 지원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MC로 장애아동 돕기에 나선 (왼쪽부터) 김용빈·장민호·안주희. ©밀알복지재단



한동대-에반겔리아대, 신학 인재 양성 협약 체결



한동대학교와 에반겔리아대학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 이후 한자리에 모여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대

HI Alliance 기반 교육 협력 확대… 외국인 졸업생 장학 지원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위치한 에반겔리아대학교(Evangelia Universi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학·목회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최근 한동대학교 총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전인지능(Holistic Intelligence, HI)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HI Alliance'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교는 △학생 교류 및 진학 지원 △장학 프로그램 운영 △창업·국제개발·봉사학습 등 글로벌 참여형 프로그램 공동 추진 △온라인 강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디지털 교육 협력 △한동 개방형 교육 플랫폼 HOPE 공동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에반겔리아대학교가 한동대학교 외국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 진학 시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기존 HI Alliance 협약과 달리 별도 조항으로 마련된 것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한동대 출신 외국인 인재들이 각국에서 신학 및 목회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과 김윤선 대외협력실장, 곽상훈 HI Alliance 사무국 부국장, 노규석 교목실장과 에반겔리아대학교 김종국 총장, 앤디정 교수, 조윤태 홍콩 엘림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진 총장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에 김종국 총장은 "한동대학교를 거쳐 온 외국인 청년들이 신학적 전문성과 영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반겔리아대학교는 1995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재의 사립 기독교 신학대학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한 다문화·이중언어 목회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학부와 석·박사 과정이 함께 운영되며,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와 미국 기독교학교·대학협회(TRACS)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제53회 전국SFC 대학생대회, 6월 30일 개막

'우리가 사랑하자' 주제… 호서대 아산캠퍼스서 4박 5일 진행



학생신앙운동(SFC·대표 공경민 목사)이 여름 대학생 수련회를 개최한다.

제53회 전국SFC 대학생대회가 '우리가 사랑하자'(요한일서 4장 7~8절)를 주제로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 신앙 공동체의 교제와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집회와 강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주강사로는 포항장로교회 담임이자 전 SFC 간사인 박창원 목사와 전국SFC 대표간사인 공경민 간사가 나서 말씀을 전한다.

참가 신청 및 선입회 관련 문의는 각 권역 및 지부별 입회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지동 기자

명지대 일어일문학전공, 일본 도쿠시마 방문 프로그램 성료

한일 대학생 교류 확대… 글로벌 앰배서더 위촉 및 문화 체험 진행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전공이 일본 도쿠시마현의 초청으로 진행된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명지대학교는 20일, 일어일문학전공 학생과 교원들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을 방문해 교류 행사와 문화 체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지대 일본 도쿠시마 방문 프로그램은 도쿠시마현의 전액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총 46명이 참여했다.

이번 명지대 일본 도쿠시마 방문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 간 우호 증진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도쿠시마현 내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문화를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넓혔다.

방문 첫날에는 도쿠시마현청을 찾아 고토다 마사즈미 지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 학생 전원은 '도쿠시마 글로벌 앰배서더'로 위촉되며 위촉장을 받았다. 이어 도쿠시마 워싱턴 호텔 플라자에서 '도쿠시마 한일 글로벌 다이얼로그 2026' 교류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도쿠시마현 지사를 비롯해 도쿠시마대학 총장, 시코쿠대학 총장, 도쿠시마문리대학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둘째 날에는 나루토시에 위치한 오츠카 국제 미술관과 우즈노미치를 방문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둘러봤다. 이어 도쿠시마시 아와오도리회관에서는 일본 전통 춤인 아와오도리를 체험하며 지역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도쿠시마성 박물관을 방문해 일본 전통 정원을 견학하고 다도 체험을 진행했다. 이러한 일정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일본 도쿠시마현을 방문한 명지대 일어일문학전공 파견단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명지대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현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지대 일본 도쿠시마 방문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측은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서울신대, '부천 페스타 봄꽃여행' 참여로 지역 상생 실천

공예 체험 부스 인기… 외국인 대학원생 참여로 글로벌 교류 확대

서울신학대학교가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산학 협력과 지역 상생 활동에 나섰다.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는 부천시 콘텐츠관광과의 관내 대학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부천 페스타(B-festa) 봄꽃여행' 행사에 대학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에 적극 동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신학대학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당 부스는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특히 글로벌경영융합대학원(원장 김은현)의 외국인 석사 과정생들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을 도왔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 형성됐다.

조성호 기획처장은 "이번 참여는 대학의 인적 자원을 부천시 축제 현장에 접목해 관광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에게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 페스타(B-festa) 봄꽃여행 행사에 참여한 서울신학대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이 행사 부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대

장지동 기자

UBF, 온라인 헌금교육 진행

재정 실무자 70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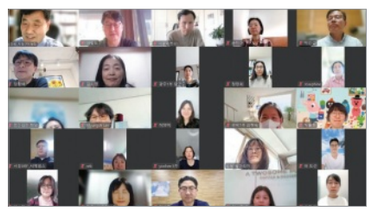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가 재정구제부 부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헌금 교육을 진행했다.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는 지난 18일 봄학기 헌금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정구제부 부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총 70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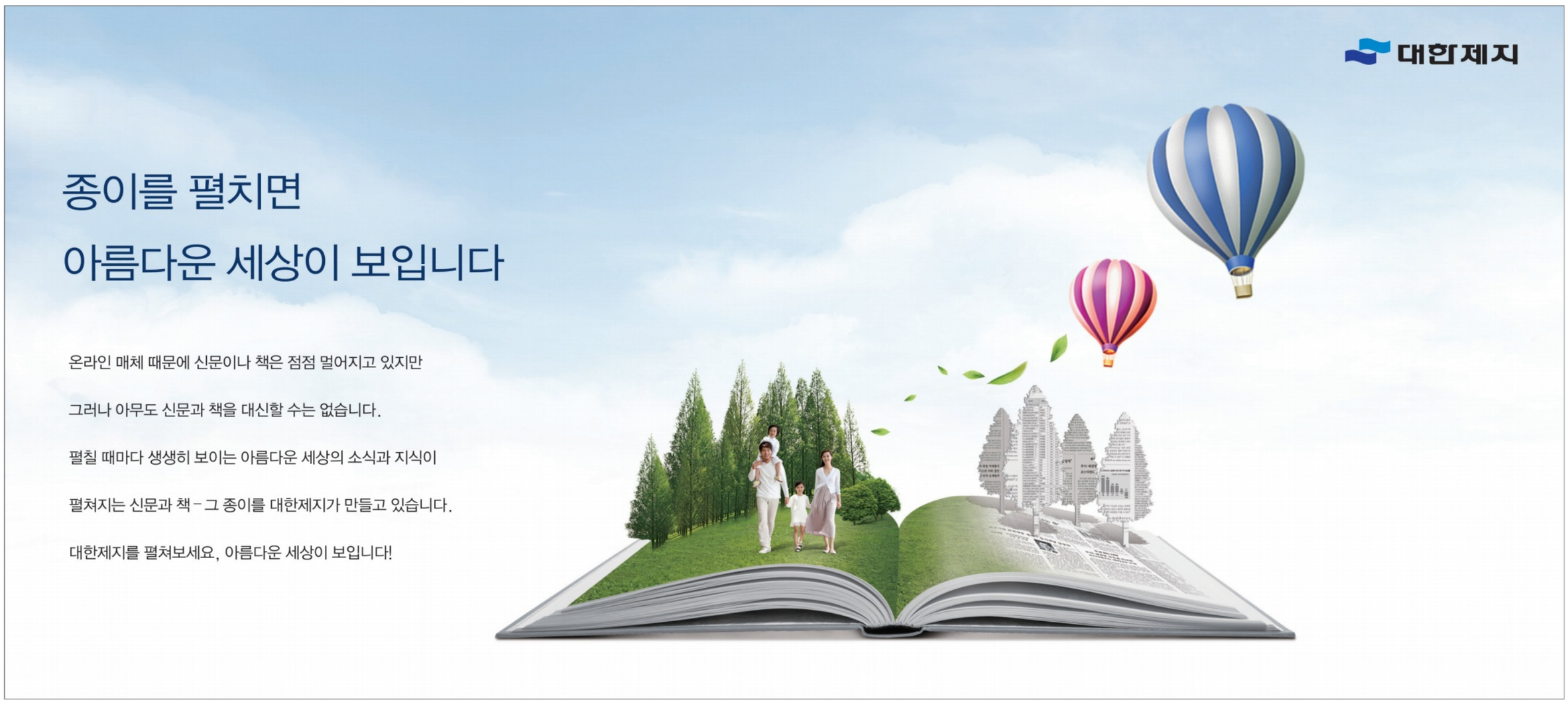
이날 교육에서는 남다윗 목자가 '야곱의 십일조'(창세기 28장 10~22절)를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남 목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설명하며, 야곱이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와 십일조로 응답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성도들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교육에서는 2026년 세계선교대회 현장 헌금 운영 방안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으며, 재정부 본부 실무자인 허윤희 목자가 재정 실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UBF 봄학기 헌금교육에 참여한 재정구제부 부장 및 실무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BF

장지동 기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김남수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21-23)

좋아하는 후배와 점심을 함께 할 때 그는 살면서 일어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새벽기도를 간 사이 한 번도 깨지 않던 젖먹이 아이가 우는 바람에 그날은 새벽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아이가 칭얼대자 엄마 젖을 빨며 편안히 자던 아이를 생각해 아빠의 젖을 물렸나 봅니다. 하도 급하니까 시도했던 모양인데 어디 통할 일입니까! 같은 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가 찾은 것은 젖이 아니라, 바로 엄마이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의 관심은 예배하는 장소, 시간 등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what)이 아니라 '누구'(who)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드리는 찬송, 즉 음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찬양에 대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전 14:15)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의 심령은 무지와 습관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 밖에서 역사나 전통을 고수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경건한 음악을 찾기 위해 고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고전이란 무엇이며, 고전시대에 음악을 만든 크리스천들이 추구했던 경건 사상과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건 사상의 본질은 서로 다른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의 음악은 성경이 말하는 음악 형식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특정 시대의 작품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는 자,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보수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내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20절은 음악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첫 구절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진정)와 이해(마음) 없이는 찬양의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로 드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리는 심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 찬양은 균형을 잃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신령과 진정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또한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찬양이라 하더라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인 '신령과 진정' 밖이라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음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찬양하기에 앞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 김남수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음악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음악춘추사)과 《코랄 엔딩이 있는 찬송 데스칸트》(미완성출판사)를 작곡하여 출판했으며 〈서쪽 하늘 붉은 노을〉(새찬송가 158장) 외에 여러 교회음악을 작곡했다.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요단출판사),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숨겨진 찬송이야기』(아가페북스) 등을 저술하여 교회음악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 2

기본 자격, 사역자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


오스왈드챔버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전 1:1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마치 주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시145:10)"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에 가장 절묘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사람도 처음에는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해 주를 찬양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피조물 가운데 광란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현은 회개라는 단조를 사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했다(눅 15:10)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방향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

당신이 아프든 건강하든, 돈이 없든 많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오직 주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귀에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이다. 바울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딤전 1:13) 이제 그는 사역자로서 모든 기초를 다시 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 후로 그는 전 생애 동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

◈ 오스왈드챔버스
에든버러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 신실한 증인으로 헌신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순회설교자로(1906-10), 잉글랜드의 클라팜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로서(1911-15), 그리고 이집트에서 YMCA 군목으로(1915-17) 활발하게 사역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솟아난 그의 메시지는 구원의 기쁨과 구령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었다. 주옥같은 메시지를 엮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비롯해 그의 많은 묵상과 설교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영적인 감화를 크게 끼치고 있다.

사역자가 통과해야 할 시험

사역자는 자신이 주 예수님에 의해 능력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다. 따라서 언제나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역하며 더 나은 사역을 위해 주를 의지한다. 주께서 내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절대 약해질 수 없다.

한편, 주제넘을 정도로 자신의 약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강퍅한 마음 때문이다. 그 마음은 주님에 의해 힘을 얻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심보이다. 따라서 "나는 너무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너무 고집이 셉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면 나는 언제나 주님처럼 강하게 된다. 바울은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

사역자가 인식해야 할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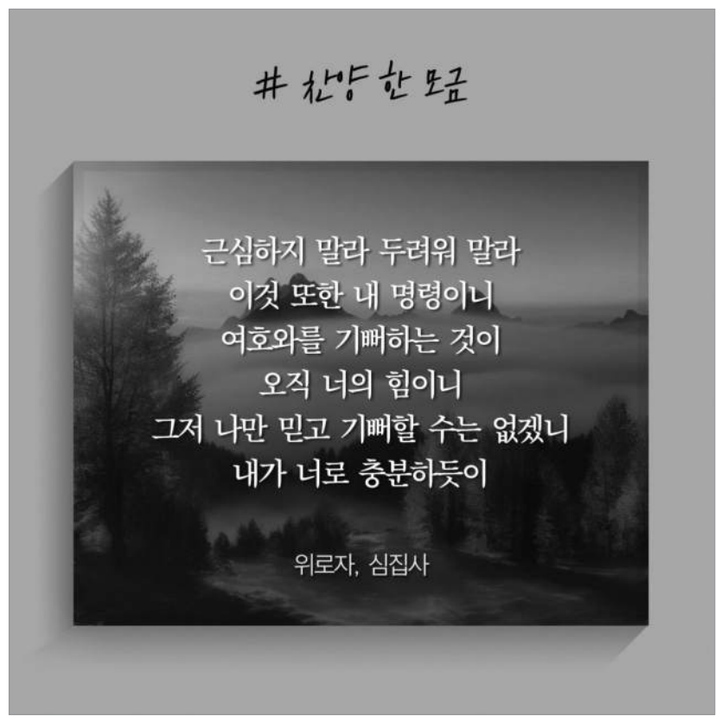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용기를 우상화하려는 마지막 유혹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역은 내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사역이지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주님께서 이미 만유의 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극복할 것도 없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통해 승리자 이상의 자리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사역자는 더 이상 자신의 영웅심을 부추기지 않아도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만을 놀라울 만큼 영화롭게 높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는 이미 영원한 승리자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누리면 된다.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김'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호하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설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는 것을 말한다.

사역자가 책임져야 할 직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딤전 1:11)"에서, '맡기신바 직분'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한다. 만일 내가 이 직분에 충성하려면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적절하지 못한 관심이나 감정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 직분은 나 자신이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완벽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확신에 근거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 필요에 따라 내가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다(골 1:28~29)





하하, 지예은 결혼 시 신혼여행 지원 약속… 방송 발언 화제

'런닝맨'서 공개된 파격 제안… 지예은 열애 인정 이후 관심 이어져

방송인 하하가 지예은의 결혼을 전제로 신혼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TV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은 '런닝데이즈: 암호명 R'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배우 유준상과 신성록, 박은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하하 발언 배경과 방송 상황

이날 런닝맨 방송에서 하하는 게임 도중 스파이 후보로 지목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지예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하는 지예은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며 상황을 전개했다.

그러나 지예은은 하하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복된 상황에 대해 "매번 속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하하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일 경우를 전제로 조건을 제시하며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105만 명 이상으로 만들고,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까지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출연진과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냈다.

◈지예은 반응과 예능적 분위기

지예은은 이에 대해 "이 장면이 카메라



방송인 지예은 씨. ⓒSBS '런닝맨' 캡처

에 모두 담겼다"고 말하며 상황을 받아쳤고,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이어졌다.

방송은 예능적 설정 속에서 진행됐으며, 출연진 간의 대화와 반응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분위기를 형성했다.

특히 하하의 발언은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온 제안으로, 프로그램 특유의 유쾌한 흐름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지예은 열애 인정과 관심 확대

한편 지예은은 최근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94년생 동갑내기인 지예은과 바타는 교회 활동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타는 지난해 지예은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 '충주지씨'의 '워터밤 서울 2025' 안무를 제작하며 함께 작업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히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나래 기자

하트-하트재단,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성료

하트-하트재단(회장 오지철)은 최근 서울 송파구 하트-하트재단 하트리사이틀홀에서 발달장애인 음악 인재 발굴을 위한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결선 경연 및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하트하트음악콩쿠르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음악 콩쿠르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30명의 발달장애 연주자가 참여해 피아노, 현악, 관·타악, 성악 등 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결선에는 지난 3월 본선을 통과한 부문별 금상 수상자 8명이 무대에 올랐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관·타악 부문 민경호 씨(26세, 클라리넷)에게 돌아갔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민경호 씨는 "음악은 내 삶의 전부이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콩쿠르 수상자들에게는 총 3,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향후 하트-하트재단이 주관하는 기획 연주회 참여 기회와 ㈜하트하트아트앤컬처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대상 및 금상 수상자 8명 ©하트-하트재단

GOODTV, 창사 30주년 맞아 '바이블애플' 이벤트 진행

성경 읽기·말씀 나눔 미션 수행… 다양한 경품 제공

GOODTV(대표이사 김명전)가 창사 30주년을 앞두고 자사가 제작·보급하는 성경 애플리케이션 '바이블애플'을 통해 성경 읽기와 말씀 나눔을 독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GOODTV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GOODTV 창사 30주년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블애플'은 500만 명이 다운로드한 국내 대표 성경 앱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이용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는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션 시작하기'를 신청한 뒤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미션은 ▲바이블 선교사 등록 ▲말씀 공유 30회 ▲읽기 계획 수립 후 14일 연속 성경 읽기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지며, 100명에게는 eBOOK 3개월 이용권이 증정된다. 또한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갓 빈스 카페' 3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TV새벽예배 수영로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4월 21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4월 21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87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10 성경 속 인물사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풍성한-김성곤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87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200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식)(579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0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웅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20 사랑의 메시지 대치순복음 (한 별)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 (권기웅)	30 걸어서 이스라엘(2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623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60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경민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37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4월 21일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78회)	00 하나님의 음성(217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74회) 마태복음 27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0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공형진 배우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에스겔 5강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0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912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2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15회)	10 새롭게하소서(11431회) 김지희 사모 1부	00 김재원의 광야예찬(11회) 4대째 이어진 신앙의 DNA, 가난한 이웃의 희망이 되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매일 주와 함께	20 THE NEW 하늘빛향기(5회)	00 CBS NEWS 10 20 성지가족(32회)	00 내 삶의 행복(204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16회)
11:00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그루터기교회 -안성빈 목사 50 신앙에세이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비전설교 새문안 (이상학)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70회) 50 예수동행일기(12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1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71회) 오택현 교수 네 번째 9강 대예언서를 이야기하다 : 예레미야의 생애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24회) 50 성지가 좋다(526회)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풍성한 (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2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340회)	00 감신대 화요채플(79회) 30 TV강단 필그림(김형석)	20 말씀의 창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신앙에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37회)	00 행복한 쉼터 명륜중앙 (손의석)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성남 (양병열)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57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116회)	00 올포원(729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476회) 50 위대한 유산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밤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4월 21일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57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1031회) 최서형 장로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61회)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81회)
15:00	4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그루터기교회 -안성빈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304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4월 21일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85회) 민수기 2강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횃불-이재희	0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쉼터 평택성원(박충권)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73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2회) 5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29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73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1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에세이	00 다큐 더 로드 2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임다윗)	30 [말씀]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292회)	50 영혼의 양식_구세군대한본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8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샘솟는-최병남 30 부흥 어게인 송촌장로교회 / 한택균 목사	00 리바이츠 헤리티지 10 행복한 쉼터 순복음금정 (김형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RE바이블(24회) 50 예수동행집회(21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톡(66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19:00	20 더 초즌 시즌4(더빙)(6회) 15세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00 이영훈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606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안-김의철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 (이경은) 40 훈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4월 21일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화요성령집회-(14회) 40 미션로그 - 끝나지 않은 선교이야기(3회)	00 CBS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_인천제일(이제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84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메신저스 김선교 선교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37회) 50 CTS뉴스	10 GOODTV 특별기획 이슬람 속 기독교 뿌리 마다바를 가다 40 GOODTV NEWS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2026년 04월 21일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74회) 마태복음 27강 50 샬롬 쌀롱(6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34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에스겔 5강 권수경 목사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1회)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4월 21일 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29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31회) 김지희 사모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82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68회) 오택현 교수 네 번째 6강 대예언서를 이야기하다 : 포로 귀환공동체의 위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4회)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 김양재 목사 6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카일 아이들먼의 단순한 믿음(4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4월 21일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2회)	10 2025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7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60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55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00:00	00 Calling GOD(2476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행복한 쉼터 청주중앙순복음 (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4월 21일 2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113회)	10 성지가족(32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67회)	00 한소망교회 한밤의 기도회(111회) 40 성경 속 인물사
01:00	00 CTS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은혜의 증인들 5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 김진산 목사 16회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중동 (김경문) 4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66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66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29회) 40 CBS 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34회)
0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이호수 박사	10 샤론의 꽃 필 때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16회)	30 TV강단 승리(박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에스겔 5강 권수경 목사 50 힐링스토리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Simple Cross(4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618회)	00 올포원(255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0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서임중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중앙성결 (한기채)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39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73회) 고린도후서 6강 50 CBS 교회소식(1047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21회) 김상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63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